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남고되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인: 오 거 본
편집 / 제작: 경남중고동창회보 편집실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용마 대학총장’ 전성시대

부산, 울산지역 6개 대학총장 모두 ‘용마’ “대단하다” “자연스런 현상” 반응

부산대 김기섭(30회), 동아대 조규향(14회), 해양대 오거돈(21회) 동의대 정량부(17회), 경성대 송수건(24회), 울산과학대 이수동(19회)

부산, 울산지역 주요 대학의 대학총장 자리를 우리 동문들이 거의 석권하다시피 해 ‘용마 대학총장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대 총장 재선거에서 김기섭 동문(30회)이 당선되고 경성대 총장으로 송수건 동문(24회)이 공식취임함으로써 부산지역 대학들 중에서 경남고 출신 대학총장은 조규향 동아대 총장(14회), 오거돈 한국해양대 총장(21회), 정량부 동의대 총장(17회)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이수동 울산과학대학총장(19회)까지 합하면 ‘용마 대학총장’은 총 6명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수의 ‘용마 대학총장’이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타 고교 동문들 사이에서는 “대단하다. 부럽다”, “경남고 출신들이 부산지역 대학에서 총장 자리를 씩씩이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수사회에서는 “지방 명문고인 경남고 출신들이 부산지역 대학들에서 대거 총장자리에 오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부동창회에서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동문들이 주로 정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차츰 학계에서도 용마들이 이름을 나타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 김기섭 부산대총장 후보 = 지난해 11월 11일에 열린 제19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재선거에서 김기섭 동문(사학과 교수)이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1위를 차지했다. 김 동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곧 4년 임기의 신입 총장에 취임하게 될 예정이다.

김 동문은 부산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부산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94년부터 부산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송수건 경성대 총장 = 지난해 11월 15일 취임식을 갖고 경성대 제11대 총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총장에 임명된 후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학내분규가 일어나 취임식을 미루는 등 곤욕을 겪었으나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를 학칙기구화하고 교수협의 총장 거부권과 탄핵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 수습했다.



‘黑龍띠 해’... 아침 바다에서 불끈 솟는 태양처럼 용마들이여, 지혜와 용기로 거침없이 비상하라

2012년 임진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黑龍)띠해’다. 10천간(天干)중 검은색을 뜻하는 ‘임(壬)’과 12지지(地支)중 용을 의미하는 ‘진(辰)’이 결합해 60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흑룡띠해.

용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동물인데다 내년은 신성하다는 흑룡띠의 해여서 우리 용마들에게는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앞선다. <사진=부산 해운대 앞 바다에서 이용만 동문(19회) 촬영. 관련기사 19면>

2012년도 수시전형에서 서울대 합격 1명 학교측 “2년 뒤 대입성적 좋아질 것 기대”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합격자들 한명도 내지 못했던 경남고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대 합격자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21일자로 학교 측이 집계한 ‘2012년도 대입 수시합격자현황’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수의예과를 지원한 송민근 군이 합격했고 그 밖에 △연세대 3명(중복합격 1명 포함) △고려대 2명(중복합격 1명 포함) △성균관대 2명(졸업생 1명 포함) △중앙대 6명(졸업생 1명 포함) △경희대 3명(중복합격 1명 포함) △한양대 1명 △한국외대 1명 △포항공대 1명(중복합격) △UNIST 1명 △일본 와세다대 1명 △한동대 1명 등의 합격자를 냈다.

또 지방대 수시합격자는 △부산대 21명(중복합격 3명) △부산교대 1명(중복합격) △부경대 16명 △동아대 31명 △기타 4년제 대학 165명 △전문대 49명이다.

한편 서울대 수의예과에 합격한 송민근 군은 서울대 진학을 포기하고 중복합격한 연세대 의예과를 택해 진학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용 교장은 대입 실적과 관련, “새해에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편이어서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4년도 입시에서는 대입성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석상’ 첫 수상자에 ‘부시맨 닥터’ 이재훈씨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2006년부터 의료봉사

정부가 고(故) 이태석 신부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이태석상’의 첫 수상자로 외과 전문의 이재훈(44)씨가 선정됐다.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전문의인 이씨는 2006년부터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수도 안타나나리보 근처의 이토시 병원에 근무하며 병원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진료를 병행했다. 대부분 도로조차 없는 오지여서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비행기나 헬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다. 평균 100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 사나흘씩 걸

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매년 수술 100여 건을 해왔다. 지금까지 치료해준 환자만 1만 명에 이른다.

이씨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부시맨 닥터’로 통한다.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들판이나 숲 속에서 능숙하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이태석상’ 심사위원회는 “이태석 신부의 봉사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이라며 추천된 후보 50여 명 가운데 이씨를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23일 시상식을 가졌다.

주요기사 안내

- * 올 봄 칸 영화제에 재도전하는 김태용 동문 - 5면
- * 새해맞이 명랑공트 <‘똥구두 프로젝트’가 이룬 기적> - 6~7면
- * 총선을 향해 뛰는 용마들 - 15면
- * “한번 생물반이면 영원한 생물반” 생우회 이야기 - 16면
- * 방송기자 하다가 스타목사로 변신한 조정민 동문 - 17면
- * 첫 소설집 낸 치과의사 허택 동문 - 18면
- * “늘그막에 요트 타는 재미가 쏠쏠”... 이용만 동문 - 19면

동문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남중고동창회보 편집실 일동

신년호 특집 - 24면으로 증면 발행합니다

본부동창회, '2011년 동창회 10대 뉴스' 선정

본부동창회 오거돈 회장 등 회장단과 주요 직능, 지역동창회 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저녁 부산 해운대 증식당 '아미산'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오 회장의 발의로 '2011년도 동창회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참석자들은 양승태 동문(20회)의 대법원장 취임을 가장 큰 뉴스로 뽑았고 이어 '모교가 배출한 불세출의 투수' 최동원 동문(31회)의 타계와 '동창회의 영원한 만형' 정동식 동문(1회)의 별세 등을 주요 뉴스로 꼽았다. <별표 10대 뉴스 참고>

이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조규향(14회, 동아대총장) △정량부(17회, 동의대총장) △이용흠(19회, 본부동창회 고문) △남진현(19회, 자문위원) △이준만(19회, 자문위원) △노기태(20회, 부산항만공사 사장) △오거돈(21회, 회장) △강창수(21회, 기획담당부회장) △박자민(21회, 기독교문화회장) △주우실(22회, 부회장) △이병찬(23회, 삼일회계법인 대표) △곽두희(24회, 본부덕형포럼 운영위원장) △송정규(25회, 부회장) △황유명(29회, 사무국장) △윤성덕(30회, 부회장) △류명석(31회, 부회장) △박명진(33회, 부회장) △류장근(33회, 부회장) △김진호(42회, 부회장)

2011년도 동창회 10대 뉴스

- 1) 양승태 동문 대법원장 취임 (9월 27일)
- 2) 경남고가 낳은 불세출의 투수 최동원 동문 타계 (9월 14일)
- 3) 동문들의 '영원한 만형' 정동식 동문 별세 (10월 25일)
- 4) 허창수 동문 전경련회장 취임 (2월 24일)
- 5) 구본능 동문 KBO 총재 취임 (8월 22일)
- 6) 본부동창회 오거돈 회장 취임 (3월 29일)
- 7) 부산 시내 5개 대학교 총장이 모두 '용마'
- 8) 고 이태석 동문 홍상 모교에 건립계획 확정 (3월 29일)
- 9) 매일경제의 부산저축은행 주범 출신고교 은폐보도 파문(5월 5일)
- 10) 용마골프대회 사상 최대인원 참가 (12월 5일)

용마골프대회 사상 최대 51개조 참가, 대성황 단체 우승 25회, 준우승 17회가 차지

본부동창회 주최 제13회 동창회장기 용마골프대회가 지난 12월 5일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있었다.

이날 대회에서 단체전에서는 25회 선수들이 227타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은 234타로 17회가 차지했다.

개인전은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치러졌

는데 단체 개인전 우승은 박공용(25회) 동문이, 개인전 A조는 김종국(25회), 개인 B조는 김종식(32회) 동문, 여성부에서는 문성애(20회) 장영훈 동문 부인이 각각 우승했다.

이날 대회는 196명의 참가자들이 51개조로 나뉘어 오전 10시 30분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51개조가 참가한 것은 용마골프대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거돈 회장, 경남고 교직원 등 초청 송년회 110명 참석, 와인 곁들여 만찬 즐겨

오거돈 본부동창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부산 서면 더스타부페에서 경남고 김원용 교장 등 교사와 교직원들을 초청, 송년회를 가졌다.

모교 교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류명석 학교운영위원장(31회) 등 운영위원들과 정량부 동의대 총장, 허범도 수석부회장 등 동창회 관계자 등 110여명 참석, 와인을 곁들인 만찬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 최동원 동문에게 일구대상 수여

한국 프로야구의 영원한 전설 고(故) 최동원 동문(31회, 전 한화 이글스 2군 감독)에게 은퇴 프로 야구인의 모인인 일구회가 주는 일구대상이 주어졌다.

일구회는 지난해 12월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2011 CJ 마구마구

일구상 시상식'을 열고 고 최 동문과 고 장효조 전 삼성 라이온즈 2군 감독 등 두 고인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각 고인의 부인과 아들이 참석, 상을 대신 받았다.



경남중 교사개축공사 끝내고 준공식

경남중학교(교장 차동렬)가 대대적인 교사 개축공사를 끝내고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교정에서 준공기념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교사개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전체 교사(24학급)를 H자형으로 개축하면서 앞뒤 교사동 사이에 중정(中庭)을 두고 모든 교실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대강당, 5층 복도, 지하실에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시설 등을 하는 공사

로 지난 2010년 6월에 착공, 1년 6개월 만에 공사가 끝났다.

이날 준공기념식에는 오거돈 본부동창회장, 임우근 재경동창회장, 배재욱 재경경발위 위원장, 남진현 본부동창회 자문위원, 김무성 동문(국회의원), 임혜경 교육감, 김종서 서부교육장, 박극제 서구청장 등과 경남중 교직원, 재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용마언론인클럽 새 회장에 이만수 KNN사장(28회) 사무국장은 강병균 동문(38회) 선출

부산 경남지역의 전, 현직 언론인동문들의 친목단체인 용마언론인클럽은 지난해 12월 27일 저녁 부산 민락동 수정집에서 송년회 겸 총회를 열고 전임 권명보 회장의 후임으로 이만수 동문(28회, KNN사장)을 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사무국장으로 강병균 동문(38회, 부산일보 기자)을 뽑았다.

이날 모임에는 20여명의 언론인동문들과 오거돈 회장, 이용흠(19회, 본부동창회 고문), 남진현(19회, 자문위원), 노기태 동문(20회,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만수 동문

덕경회 송년모임 가저

동문 경제인들의 친목 단체인 덕경회의 송년회가 지난해 12월 8일 부산 서면 월강초밥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송규정 덕경회장(16회)을 비롯, 오거돈 동창회장(21회), 이용흠 고문(19회), 정영석 동구청장(24회), 서병수 국회의원(25회), 이기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27회), 이만수 KNN 사장(28회), 김기섭 부산대 총장 예정자(30회)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용마산악대회에 180여명 참가 23회가 우승, 33회는 2등

제12회 동창회장기 용마산악대회가 지난 12월 11일 금정산 일원에서 열렸다.

용마산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8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오후 3시 30분경 산행을 끝내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2부행사를 가졌다.

용마산악대회는 매년 4차례 갖는 등반 모임에서 참석인원이 제일 많은 기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23회가 1

등을 차지했고 33회가 2등, 41회가 3등을 차지했다.

본부덕형포럼, 1월 18일 박인국 동문 초청 특강

본부덕형포럼(회장 정량부)은 1월 18일 아침 7시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제10회 포럼을 개최한다.

초청연사는 유엔주재대사를 지낸 박인국 동문(25회·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이다.

최철국 동문(25회) 법정구속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철국 동문(25회,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이 지난해 12월 23일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이날 최 동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2천758만 원도 부과했다.

최 동문은 현역 의원이던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경남의 모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 모(52) 씨로부터 "한전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천만 원과 미화 8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임진년은 '흑룡띠 해'... 우리 모두 흑룡의 기상으로 날고 뚝시다



서양화가 박윤성 동문(24회)의 목판화작품 <흑룡>. (핸드 프린팅, 가로 30cm 세로 22cm)
박 동문은 임진년 흑룡띠 새해에 모교와 우리 동문들이 흑룡의 비상하는 기운을 받아 승승장구하라는 뜻에서 이 목판화를 특별제작, 동창회보에 보내왔다.

신년사

개교 70주년 맞는 뜻깊은 해... 명문고로 비상해야

사랑하는 용마 동문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교가 개교한 지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 모교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내는 등 명실상부한 명문 중고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쌓아온 명문교로서의 전통과 명성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초일류 학교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도 용마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교가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교의 무궁한 발전과 용마 동문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일 대법원장 양 승 태

흑룡의 상승 기운 받아 도약하는 한 해 되길...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입니다. 흑룡의 해에는 힘찬 상승의 기운이 넘쳐 하늘을 비상하는 기운이 온 누리에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올 한해 내내 용마가족 여러분 모두 흑룡의 기운과 기상을 받아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시근종태(始勤終怠) 종근여시(終謹如始)'라는 옛말처럼, 어떤 일이라도 처음의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원단의 초심을 내내 유지하고 실천해서 뜻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 용마인들의 오늘을 있게 해준 자랑스러운 모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통해, 모교와 동창회가 하늘을 비상하는 용처럼 기일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우리 모교의 중흥과 동창회의 발전, 그리고 용마인 모두의 건승을 거듭 기원합니다.



2012년 1월 1일 국회의장 박 희 태

모교 중흥은 동문 개개인의 자존심 살리는 일

동문 선후배 여러분, 임진 새해에 소원성취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모교발전기금 조성에 매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만 아직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기에 목표액 달성을 끝내고 모교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하나 서둘러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올해로 모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습니다만, 지금 모교의 위상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교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도록 하는 일은 곧 우리 동문 개개인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새해는 마침 흑룡띠의 해입니다. 모교도, 우리 동창회도, 동문 여러분 개개인도 하늘 높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월 1일 본부동창회장 오 거 돈

개교 70주년 맞아 모교발전에 힘 모아...

임진년 새해 아침에 동문 여러분에게 인사 올립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진년은 흑룡띠의 해입니다. 우리 용마들에게는 어느 해보다 뜻 깊은 한 해가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용마인 모두가 용마의 기상을 살려서 높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빌어 봅니다.
특히 올해는 모교가 개교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교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모교가 명문고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한 해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재경동창회도 본부 동창회와 협력해 모교발전을 위해 적극 나설 각오입니다.
다시한번 모교발전과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2012년 1월 1일 재경동창회장 임 우 근



Since 1963

한
젓갈로
의
행
복

부산본사 : 051) 410-7100
서울사무소 : 02) 3400-5152



고슬고슬한 밥 위에 한성젓갈 한 젓갈 올려 놓으면
한그릇 푹딱, 난 먹성 좋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밥이 힘이고 맛있는 식탁이 행복이라는 평범한 진리!
오늘 저녁 남편과 아이에게도 알려 주어야지.



얼듯 말듯 빙온에서 숙성시켜 더욱 맛깔스럽고 신선한
한성젓갈로 한 젓갈의 맛과 행복을 느껴보세요.



희망 2012년 - 칸 영화제에 재도전하는 김태용 동문(60회)

“나보다 더 소외되고 방치된 사람들에 관심”

김태용 동문(60회,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2학년 휴학)은 올 봄 다시 칸 국제영화제에 나갈 준비로 바쁘다. 지난 2010년 5월 단편영화 <얼어붙은 땅(Frozen Land)>으로 칸 국제영화제의 학생영화 경쟁부문인 시네파운데이션에 초청돼 크게 주목받았던 그가 2년 만에 칸 영화제에 재도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출품할 영화는 <밤벌레>라는 단편영화.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2학년을 마치고 2008년에 휴학, 군에 입대해 2년간의 공익요원 근무를 끝낸 그는 학비마련이 어려워 차제에 학업을 중단할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세종대 측으로부터 장학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새 학기에 3학년으로 복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래저래 임진년 새해에 그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불행한 덕에 내일을 고민... 영화는 나의 탈출구”

- 새해에 칸 국제영화제에 출품할 <밤벌레>는 어떤 영화인가.

“동성연애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영화입니다. 내가 찍은 9번째 단편영화인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작비를 지원해주어 지난해 여름에 촬영을 끝냈습니다. 올 봄 칸에 출품하기 위해 현재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2년 전 학생감독으로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 받아 일약 유명해졌는데.

“그 후로 여기저기서 언론인터뷰가 많았어요. 강연회 초청도 받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요즘 <밤벌레> 편집작업 외에도 모 기획사와 손잡고 본격적인 장편영화를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동문은 자신의 트위터에 “여전히 불행하지만 불행한 덕에 내일을 고민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려 놓고 있다. 의외다. 스물세살의 나이에 자신이 직접 만든 단편영화로 세계 3대 국제영화제 중의 하나인 칸 국제영화제의 학생영화 경쟁에서 뽑혀 초청받았던 그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털어놓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자신의 남다른 행편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가난 속에서도 꿈 잃지 않고 독서와 글쓰기에 몰두

그는 1987년에 부산 광안리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유소년 시절을 보내던 그에게 남다른 일이 벌어졌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보호시설의 일종인 ‘그들 홈’에 맡겨진 것이다. 다 묻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건축업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IMF의 칼바람이 그의 집안에도 직격탄을 날린 모양이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양부모를 만난 그는 처음으로 신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종교적인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대다수의 아이들과는 달리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흔들리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그를 위로한 것은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그의 독서 편력은 자연스럽게 글쓰기로 이어졌고, 각종 백일장은 그의 독무대였다. 글쓰기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카타르시스로서의 의미가 컸고, 또 어느 정도는 주위의 도움과 기대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있었다.

- 어떤 계기로 처음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우연히 다르텐 형제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열여섯 살 소년 프란시스코에게 복수 일을 가르치게 된 운명에 놓인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즐거리보다는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영화라는 장르에 끌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영화감독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나 영화를 공부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 홈’이란 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단체 생활 속에서 혼자만의 꿈을 키워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대신동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은 더 나빠져 있었다. 이때 주소지를 옮기면서 전학 간 학교가 경남고였다.

경남고 2학년 때 첫 영화 찍고 마음의 상처 치유

전학이라고는 하지만 경남고는 초등학교와 같은 학군이라 어릴 적 친구들이 많았다. 그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꿈을 밝혔다. 너무나 입시라는 중압감에 눌려 지내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영화감독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를 신선한 충격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선생님들은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함께 영화를 보러가기도 하고, 영화동아리 활동이라면 ‘야자’ (야간자율학습)도 빼주는 ‘특혜’를 주었고, 때론 제작비에 보태라며 성금을 모아 주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찍은 30분짜리 첫 작품이 <바람이 분다>(2004)다. 이어 고3 때는 환경영화제의 지원을 받아 <아이들은>(2005)을 찍으며 부산 지역에서 ‘영화 만드는 학생 김태용’으로 이름을 날린다.

- 첫 작품은 어떤 영화였는가?

“첫 작품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찍으면서 저를 억눌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 그러면서 아마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했던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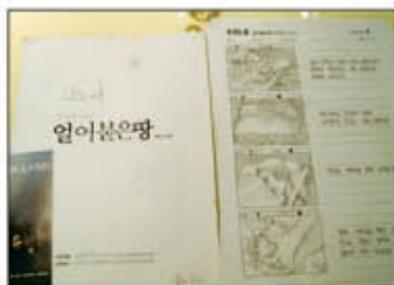
2006년 그는 세종대 영화예술학과에 입학한다. 그해 세종대에서 개최한 시나리오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덕택이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낭만적인 대학생살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였다. 학비는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지만, 숙식을 해결해야 하기 위해 고시촌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에 매달려야 했다. 2학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영화 <풍파리>의 막내 스태프와 김국 감독의 <고갈>에 조감독으로 일했다. 영화 제작의 현실을 체험하며 신념, 열정을 배운 시기였지만 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무언가 질문하는 영화 찍고 싶어”

2008년 가을, 그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지시설인 모자원에서 근무했다. 이 때 만든 영화가 그의 7번째 단편영화인 <얼어붙은 땅>이다. 시나리오를 훈련소에서 썼고, 촬영은 휴가를 내서 찍었다.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작 지원금과 스태프



단편영화 <얼어붙은 땅(Frozen Land)>의 포스터



영화 <얼어붙은 땅>의 콘티

들로부터 모은 십시일반의 돈이 ‘실탄’이 됐다.

- <얼어붙은 땅>은 어떤 영화인가?

“중국인 밀입국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브로커인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다



김태용 동문. 그는 “영화를 만들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고 느꼈을 때 오히려 저보다 더 소외되고 방치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갔어요. 그 안에서 욕망과 윤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루려 했어요. 무언가 질문하는 영화, 감상에 빠지지 말고 인간본능에 대해 날카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찍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이 칸에 초청된 이후로 주위의 기대어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후속작인 <복무태만>이 2011년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남다르게 어려운 처지에서 ‘영화 만들기’는 그에게 불행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로일 것이다. 자신의 말대로 ‘불행한 덕에’ 오히려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힘을 얻는지도 모른다.

그가 ‘젊은 영화감독 김태용’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이창기 객원편집위원(시인)>

수상작품

<얼어붙은 땅> (2010)

경쟁과 병조. 두 남자의 직업은 중국에서 건너오는 밀입국자들을 육지로 빼돌리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에 회의를 느낀 경쟁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어느 날 냉동 탑차에 실어 보낸 밀입국자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여자로 인해 경쟁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 * 2010년 전주국제영화제 이스타항공상
- * 2010년 칸 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초청

<복무태만> (2011)

나이 서른둘에 뒤늦게 공익근무를 시작하게 된 봉재는 두 어린 후임과 함께 텅 빈 복지관을 지키던 중 택배기사 노식과 쉽게 가라앉기 힘든 시비에 휘말린다.

- * 2011년 미장센단편영화제 최우수상

■ 새해맞이 명랑 토크

'똥구두 프로젝트'가 이룬 기적



천금성 (14회, 소설가)

개항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부산 가덕국제공항에 도착해 공항청사 밖으로 나온 제임스 올리버 기사는 먼저 한국의 맑은 하늘에 내심 감탄했다. 안개 자욱한 런던과는 판이했기 때문이다.

그는 택시를 타고 '경.남.고.등.학.교!' 라고 포박포박 행선지를 말했다. 단정한 제복 차림의 택시기사는 미소를 듬뿍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알만하다는 표정이었다. 최근 들어 가덕국제공항에서 만나는 외국인방문객들 중에는 마치 어떤 집회에 참석이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똑 같은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기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 경남고등학교라니까!

차창 밖으로 전개되는 바다와 강을 보며 올리버 기사는 며칠 전 이튼스쿨의 애드먼드 교장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런던 데일리>의 교육담당 기자인 그는 애드먼드 교장이 얼마 전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곳의 경남고교와 교육적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온 사실을 알고 취재차 이튼스쿨을 찾아갔었다. 이튼스쿨이 외국학교와 협력관계를 맺은 것은 5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국의 그 학교가 도대체 어떤 학교냐"는 그의 질문에 애드먼드 교장은 웃으면서 "글쎄요,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하여튼 그 학교에 직접 가봐야 할 겁니다. 그 말 밖에 딱 말은 할 수가 없겠는데요"라는 수수께끼 같은 답을 했던 것이다.

택시는 여러 개의 터널과 다리를 지났다. 곧 복잡한 거리를 거쳐 이제 주택가로 들어서거나 했는데 택시는 금방 숲 속으로 난 길에 들어섰다. "여기서부터 학교 캠퍼스"라는 택시기사의 설명이었다. 택시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나무 숲 사이로 구불구불하게 뻗은 길을 한참이나 달렸다.

으음, 일개 퍼블릭스쿨의 캠퍼스가... 이런 숲 속에...

올리버 기사는 캠퍼스의 울창한 숲도 숲이지만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곳은 원래 수원지였다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됐던 곳인데 부산 시민들이 부산, 아니 대한민국의 자랑인 경남고교가 전용하도록 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냈다는 것이다. 시의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공원 전체가 경남고 교정(敎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래 경남고 아래쪽으로 모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시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그 대학의 캠퍼스도 매입하여 경남고 울타리에 포함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이윽고 택시는 학교건물들이 보이는 곳에 멈춰 섰다. 거기엔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을 축소 한 것 같은 둥근 건물이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사들과 여러 채의 부속 건물군이 수줍은 듯 숲 속에 피리를 틀고 있었다. '원형교사'라고 부르는 그 낡고 낡은 건물만 빼고는 모두 새로 지은 건물들이라고 했다.

"기자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눈이 부실 만한 미모에 빨간 색의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올리버 기사를 맞아 교장실로 안내했다. '안네도우미'라고 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다. 교장실이 있는 본관으로 가면서 올리버 기사는 경남고가 남학생들만 다니는 퍼블릭스쿨이라면 애드먼드 교장의

말이 떠올라 여자 도우미에게 그 점을 지적했다.

"기자님, 그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도우미 양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울의 유명 여자대학을 졸업하였다는 것, 경남고에는 도서관과 양호실요원, 실험실조교 취미활동 보조원 경비요원 등의 자리에 유명여자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 자신은 2년 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해 이 학교 시큐리티 부서에 배치돼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남고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누구나 알아줄 뿐 아니라 좋은 신랑감을 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졸여성들은 사법고시를 보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보다는 경남고에 취직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 등등을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어실력을 뽐내려는 듯 말이 많았다.

본관 2층의 교장실로 가는 넓고 긴 복도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복도 한켠에는 갖가지 오래된 우승기며 우승컵, 각종 상장 등이 진열되고 있었다. 거기에 단연 야구와 관련된 트로피가 많음을 보고 이 명문교의 교기(校技)가 야구임을 알았다.

교장실 맞은편 공간은 넓은 회랑으로 유리 돔 천장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곳의 중앙 벽면에는

순금 접시엔 낡은 '똥구두' 한 켤레가...

"한 때 동문들을 비탄에 빠지게 했던 힘든 시절 있었다" 회고

"죽어서 갖고 갈 돈 아니니..." 재벌 동문, 전 재산 모교에 내 보

주먹으로 뺏 맞는 '전통적 통과의례'에 감격의 눈물

여러 개의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올리버 기사의 눈길이 갔다.

그 액지에는 큰 붓글씨로 '똥구두의 자존심을 살리자!' 라는 해괴한 글귀가 쓰여 있었다. 또 그 아래쪽의 액지에는 '경고의 훈' '후배들이여, 선배들을 따르라' '경고인이여, 세계를 품어라!' '용마는 하늘 높이 날고 고래는 거친 현해를 달린다' '출라 경고!' 등등의 글들을 담고 있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회랑 한 가운데에 있는 유리 상자였다. 고급목재로 짠 8각형의 받침대 위에 놓인 유리상자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순금의 쟁반이 있었고 그 위에 뜻밖에도 그 옛날 군인들이 신었음직한 낡은 워커화 한 켤레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전시돼 있었다. 아니, 순금접시 위에 다 떨어진 군화를 마치 보물인양 모셔놓다니?! 이 놀랍고 해괴한 전시물에 올리버 기사가 정신이 홀랑 빠져 있을 때 문이 열리며 교장선생님이 나타났다.

"바로 그 신발이야말로 이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물의 하나입니다."

40중반쯤 돼 보이는 교장은 '똥구두'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지난날 이 나라가 겪었던 전쟁과 지독했던 가난, 그런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둘 다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해낸 것이 각계에 포진해있던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다 떨어진 똥구두야말로 그들이 이 학교에 다닐 때 자랑스레 신고 다녔던 교

화(敎靴)였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

올리버 기사는 그만 가슴을 치받는 몽글한 감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는 오래 전 런던 시내에 있는 신문박물관에서 보았던 사진들을 기억해냈다. 선배종군기자들이 .625 때 찍은 낡은 사진들은 전쟁이 남긴 폐허를 배경으로 험벗은 어린아이 하나가 울먹이던 당시의 참혹상을 담고 있었다. 그토록 슬한 난관을 겪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전후 반세기만에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것은 이미 오래 전이었고 드디어 얼마 전에는 이웃 일본을 누르고 세계 4대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 그런 놀라운 국가경제발전의 주역이 바로 '똥구두'를 신고 이 학교를 다녔던 이 학교 출신들이라니... 이튼스쿨이 영국의 지도자를 양성한 것처럼 이 학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냈다는 사실에 그는 큰 감동을 받았다.

"여기에 걸려있는 이 액자들은 이 학교 선배들이 후배들을 격려하고 질타하기 위해 보내온 글들입니다."

교장은 액자에 담겨있는 글 하나하나의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글귀마다 모교에 대한 졸업생들의 큰 자부심과 후배들에게 전통을 이어가 주기를 당부하는 선배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담겨 있음을 올리버 기사는 알 수 있었다.

이 어 교장실로 들어간 올리버 기사는 학교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키가 땅딸막하고 금테안경을 코 위에 걸친 교무선생님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유창한 영어로 학교현황을 브리핑했다. 경남고의 위상은 실로 놀라웠다. 브리핑에 따르면 코리야의 최고대학으로 친다는 서울대학교에 매년 졸업생 600여 명 가운데 500명 정도나 합격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대, 혹은 미국의 예일이나 하버드대로 바로 진학하는 학생만도 매년 50여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런 학교이니 이튼스쿨이 먼저 학생과 학점교환제 등을 제의한 것이리라. 이 학교 학생들은 누구나 원하면 얼마든지 이튼스쿨로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생이 별로 많지 않아 고민이라 했다. 이튼스쿨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본교에 남아 공부하는 게 학업성취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남고 교정에서 공부하겠다는 이튼스쿨이나 여타 외국의 유명 고교생들이

줄을 서고 있어서 학교 측으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라고 했다. 현재 영국 이튼스쿨에서 와 있는 교환학생은 30여 명 정도라고 했다.

전교생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도 자랑거리의 하나였다. 모두 10개 동이나 되는 기숙사가 캠퍼스 내 숲 속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는데, 자정을 지나 새벽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게 특징이라 했다.

올리버 기사는 이쯤에서 궁금하던 걸 물었다.

"경남고가 세계적으로까지 알려진 명문고가 된 어떤 계기일까 뭐 그런 것이 있었나요?"

이 질문에 교장은 말없이 책장에서 스크랩 북을 꺼냈다. 거기엔 누렇게 색이 바랜, 제법 오래된 신문 한장이 스크랩 돼 있었다. 이 대목에서 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 때, 상당 기간, 이 학교 동문들을 슬픔과 비탄에 잠기게 했던 힘들고 어두웠던 한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급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이 신문의 이 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장이 보여준 신문은 이 학교 본부동창회가 발행하는 <경남중고동창회보>였다. 발행날짜가 '2012년 1월'로 돼 있는 그 신문에서 교장이 손가락으로 지적한 기사는 '똥구두의 자존심을 살리자'라는 제목의 논평이었다. 아까 교장실 앞 회랑 벽에 걸린 대형액자에서 봤던 문장 바로 그것이였다.

교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개교 이후 줄곧 명문고로 이름을 날렸던 경남고가 '고교평준화'란 당시 정부의 아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20여년 이상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그것을 보다 못한 동문들이 마침내 동창회보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모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모교중흥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엄청난 액수의 기금이 단기간에 조성됐는데 무엇보다 경남고 출신인 모 재벌그룹의 총수가 "모교는 내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존재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는 것 아니냐. 죽어서 갖고 갈 돈도 아니니 모교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려고 한다"며 자신의 전 재산을 모교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는 것이다. 동창회와 학교 측은 이를 계기로 '똥구두 프로젝트'라는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에 따라 노력한 결과 불과 십 여년만에 명문고로서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은 세계적인 명문고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동문들의 모교사랑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학교 출신들이 탄 건 몰라도 자존심 하나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또한 한번 불이 붙었다 하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경상도 사나이 특유의 면모들을 지니고 있지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교장은 올리버 기자를 '원형교사'로 데리고 갔다. 그가 아까 이 학교에 들어서면서 봤던 그 꼴로세움을 담은, 아주 낡고 낡은 옛 교사였다. 이 원형교사는 이 학교 학생들에게 '성지(聖地)'로 통하는 거룩한 공간이었다. 오래 전 이 학교 초창기 적에 교실로 사용됐다는 건물인데 당시 선배들의 손때 묻은 책집상 등이 예전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 전시되고 있었다.

"이 곳도 꼭 봐야 할,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교장이 안내한 곳은 놀랍게도 원형교사의 화장실이었다. 이곳도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는데 교장은 화장실 문을 열더니 안쪽 흰 벽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무언가 어지러운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지요? 이게 오래 전 이 학교선배들이 남긴 낙서들이랍니다. 여기엔 영어단어 중 가장 길다는 영어단어가 쓰여 있군요. 이것은 수학이나 물리의 복잡한 공식이고요. 당시 이 학교선배들은 여기 화장실에 웅크리고 앉아서도 이런 수준 높은 글들을 적어놓고 즐겼 외웠던 것입니다."

교장은 "재학생들이 가끔 이곳에 와서 까마득한 선배들이 남긴 낙서들을 보고 자극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 때 교장은 손목시계를 힐끗 본 뒤 말했다.

"때 맞추어 잘 오셨네요. 운동장으로 가 보시지요. 오늘은 금년도 신입생이 입학한 지 폭한 달이 되는 날인데, 운동장에서 아주 전통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될 참이거든요. 아마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따란 운동장에는 이미 신입생 600명 전원이 열병 군인들처럼 윽글게 도열해 있었다. 학생들을 향해 마침 한 교사가 큰 소리로 훈육하고 있었다.

"제군들, 경남고 입학을 축하한다.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 통과의례가 남아 있다! 그게 무엇인지 다들 들어서 알고 있겠지?"

눈빛이 초롱초롱한 학생들이 일제히 '예!' 하고 답했다. 학교 뒤편의 산이 찌렁찌렁 울렸다. 학생들은 모두들 잔뜩 튕가를 기대하는 눈치들이었다. 이어 와이셔츠 팔소매를 걷어 올린 교사가 계단을 내려와서는 도열하고 있는 선두 학생부터 움켜쥔 주먹으로 뽕대귀를 한 대씩 올려 부치기 시작했다. 퍽! 퍽! 소리가 요란했다. 이렇게 600명의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한 대씩 올려부치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렸다. 기네스북에라도 등재될만한 놀라운 광경이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주먹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하나같이 기쁨에 겨워 감격해 하는 모습이었다. 개중에는 기뻐서 엉엉 소리 내 우는 학생도 있었다. 올리버 기자는 이 광경에 너무 놀란 나머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얻어맞고도 왜 이렇게 기뻐하지요?"

교장은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답했다.



그림 = 박윤성 동문(24회)

"아까 말했듯이 우리 학교만의 전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 전에 '코주부'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열성적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경남고에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정신 차려 공부하라'는 뜻으로 1학년 신입생들에게 실시했던 단체기합 비슷한 것인데 이걸 매년 실시했었지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제찍이요, 고매한 훈육의 일침(一針)이었습니다. 그게 한동안 없어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똥구두 프로젝트'의 하나로 다시 부활했는데,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이 통과의례를 거쳐야 비로소 어엿이 '경고인'이 된다고 오히려 이 시간을 기다린답니다. 보세요. 저렇게 얻어맞고도 좋아하는 모습들을."

교장은 이에 버금가는 전통적 행사가 또 하나 있다면서 그것은 매년 겨울 기온이 영하권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날만 골라 졸업 직전인 3학년 학생 전원을 팬츠 바람으로 운동장에 집합시켜 한 시간동안 체조와 달리기를 시키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 역시 학생들의 정신무장을 위한 훈육의 하나라는 것이다.

올리버 기자가 그 다음으로 간 곳은 학교역사박물관이었다. 티크목재로 된 증후한 문을 지나자 학교 상징인 용마상과 고래상이 마주 보며 서 있었고 이어 양쪽으로 '모교를 빛낸 동문들'이라는 타이틀의 화강암으로 된 석판이 있었다. 거기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수장(首長)을 배출한 명문고답게 각계각층에서 이름을 드높인 이 학교 선배들의 이름이 졸업년도 별로 뽕뽕이 새겨져 있었다.

안쪽의 각 전시대에는 선배들이 착용했던 교복과 교모,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책가방과 연필 자국이 선명한 교과서 공책 등도 두루 전시되어 있었다.

그 곳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과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은 교사 10여 명의 흉상이었다. 안내를 맡은 교장이 그 중 하나를 가리키며, "바로 이 분이 아까 본 주먹세례의 원조인 코주부 선생님입니다"라고 알려 주었다. 그 옆의 또 다른 한 흉상은 특이하게도 아프리카인 같은 새카만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에 '개뽕따구'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 흉상의 주인공은 예전에 이 학교에서 갖고 뜨거운 애정으로 학생들의 규율을 다잡는데 앞장을 섰다는, 학생들에게 '저승사자'로 통했던 체육선생이라는 설명이었다.

올리버 기자로서는 보고 듣는 것 마다 놀랍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수업 중인 3학년 어느 교실을 찾았다. 자유토론 시간인 듯 지도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학생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 발표내용이 난해한 우주천문학(宇宙天文學)의 빅뱅이론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런 내용은 현재 옥스퍼드대 고급반에서 다루는 것인데 그것을 경남고 3학년생이 너끈하게 소화하고 있다니!

올리버 기자가 그 다음으로 찾아간 교실은 각종 도구가 즐비한 과학실험실이었다. 한 교사가 소수 학생들을 상대로 대형 수조(水槽) 앞에서 유체역학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강의들 듣는 학생들의 표정으로 보건대 아무 문제없이 강의를 듣고 있는 듯 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모두 2학년생으로 AP과목의 하나로 이 수업을 듣고 있다고 했다. AP과정이란 고교 시절 취득한 학점을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올리버 기자는 경남고 졸업생들이 어학연수나 하는 등의 현지적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옥스퍼드나 예일대 등에서 어려움 없이 수강한다는 교장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경남고에서 한나절 머물며 모든 취재를 끝낸 올리버 기자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에 부산의 한 일간지 편집국을 찾았다. 이 신문사의 사회부장 P씨와는 그가 런던특파원으로 와 있을 때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다. P부장은 마침 갖 편집을 끝낸 조건용 사회면 대장을 보고 있던 중이었다. 거기엔 사회면 톱기사로 조금 전 자신이 방문한 경남고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제목이 이랬다.

경남고 출신, 신랑감으로 큰 인기

아니 이걸 또 무슨 소리인가. 그러자 P부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경남고는 얼마 전부터 아버지가 본교 출신 동문일 경우 가산점을 주어 신입생을 뽑는 특별전형 실시해 왔는데, 그러자 미래의 희망을 선점하려는 듯 미혼녀들이 나중 태어날 아들의 입학을 보장받기 위해 너도나도 백방으로 경남고 출신 신랑감을 구하려고 무척 공을 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였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경남고를 나와야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니 누구 할 것 없이 한사코 아들을 경남고에 입학시키기 위해 은갖 정성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 끝에 P부장은 "그래서 요즘에는 가짜 경남고 졸업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 다음날 오전 가덕국제공항 출국로비에서 런던행 여객기탑승을 기다리던 올리버 기자는 스마트폰으로 <런던 데일리>의 데스크에 문자메시지를 날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Research done. Found out that Eaton School is no longer Kyungnam High School's competitor. Will write the report as soon as I arrive in London.> <끝>

모교 발전기금 접수 현황

2011년 말까지 본부 접수분 8억 7,534만원

박상호 (26회 · (주)신태양건설 회장) 500만원

박동화 (19회 · 부산명물Hits 대표) 300만원

조운재 (22회 · 수륙산업(주) 회장) 200만원

박권병 (26회 ·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200만원

44회 동기회 (회장 강경호) 500만원

입금
계좌
안내

-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2-1 예금주 : (재)용마장학회 안경태

-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 없는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3-0 예금주 : 경남중고발전위원회 이용홍

본부동창회 접수 분 - 누계 <2011년 12월 28일 현재>

△ 故김근준(1회) 100만원	△ 김부생(12회) 30만원	△ 김백수(17회) 300만원
△ 김희철(3회) 30만원	△ 김상희(12회) 10만원	△ 김병문(17회) 30만원
△ 송두호(3회) 1000만원	△ 김선일(12회) 30만원	△ 김상천(17회) 100만원
△ 김주호(4회) 20만원	△ 김성찬(12회) 50만원	△ 김성탁(17회) 10만원
△ 박석만(4회) 20만원	△ 김수원(12회) 10만원	△ 김성오(17회) 50만원
△ 박흥기(4회) 30만원	△ 김용호(12회) 10만원	△ 김승현(17회) 100만원
△ 양종학(4회) 300만원	△ 김우성(12회) 10만원	△ 김용구(17회) 100만원
△ 장수호(4회) 100만원	△ 김종수(12회) 50만원	△ 김조일(17회) 10만원
△ 정순모(4회) 200만원	△ 김종원(12회) 10만원	△ 김준연(17회) 100만원
△ 나오연(6회) 100만원	△ 김종일(12회) 10만원	△ 김준위(17회) 100만원
△ 노재형(6회) 10만원	△ 김진갑(12회) 20만원	△ 김지창(17회) 30만원
△ 오영은(6회) 200만원	△ 김철기(12회) 100만원	△ 김창운(17회) 300만원
△ 이길상(6회) 30만원	△ 김준광(12회) 10만원	△ 김태호(17회) 20만원
△ 이희문(6회) 30만원	△ 김효구(12회) 10만원	△ 김호남(17회) 10만원
△ 임경택(6회) 10만원	△ 남기용(12회) 1000만원	△ 문석웅(17회) 50만원
△ 장재수(6회) 20만원	△ 박영운(12회) 10만원	△ 박가식(17회) 100만원
△ 정건용(6회) 10만원	△ 박윤운(12회) 10만원	△ 박신도(17회) 200만원
△ 정상철(6회) 30만원	△ 박종원(12회) 10만원	△ 박영두(17회) 20만원
△ 정세동(6회) 20만원	△ 박종정(12회) 100만원	△ 박영일(17회) 10만원
△ 최상해(6회) 10만원	△ 박창수(12회) 30만원	△ 박인사(17회) 100만원
△ 허택(6회) 30만원	△ 안상직(12회) 30만원	△ 박재구(17회) 20만원
△ 故공상태(8회) 100만원	△ 안영규(12회) 20만원	△ 박종구(17회) 100만원
△ 구본섭(8회) 100만원	△ 안영배(12회) 10만원	△ 박정홍(17회) 100만원
△ 김봉길(8회) 500만원	△ 엄태섭(12회) 30만원	△ 백철균(17회) 10만원
△ 김동열(8회) 1000만원	△ 오세정(12회) 20만원	△ 서재홍(17회) 20만원
△ 윤상현(8회) 10만원	△ 옥계한(12회) 100만원	△ 서정승(17회) 200만원
△ 이윤조(8회) 100만원	△ 왕한근(12회) 100만원	△ 손성기(17회) 200만원
△ 장희표(8회) 100만원	△ 윤성희(12회) 12만원	△ 송유근(17회) 30만원
△ 김영국(9회) 10만원	△ 이수영(12회) 10만원	△ 송인문(17회) 100만원
△ 김태영(9회) 10만원	△ 이승훈(12회) 10만원	△ 신정아(17회) 10만원
△ 박당회(9회) 20만원	△ 이용언(12회) 50만원	△ 신종(17회) 30만원
△ 성백규(9회) 10만원	△ 이원우(12회) 100만원	△ 안정의(17회) 30만원
△ 이대규(9회) 100만원	△ 임정명(12회) 30만원	△ 오대식(17회) 100만원
△ 한동대(9회) 50만원	△ 정대식(12회) 10만원	△ 우기남(17회) 50만원
△ 황영선(9회) 20만원	△ 최병준(12회) 10만원	△ 윤성욱(17회) 500만원
△ 김상국(10회) 20만원	△ 최병훈(12회) 10만원	△ 윤수성(17회) 30만원
△ 김선동(10회) 20만원	△ 최신일(12회) 20만원	△ 이건우(17회) 100만원
△ 김성규(10회) 50만원	△ 탁해정(12회) 10만원	△ 이성흠(17회) 30만원
△ 박재경(10회) 10만원	△ 하일민(12회) 30만원	△ 이세복(17회) 1000만원
△ 박종문(10회) 20만원	△ 한준배(12회) 10만원	△ 이수창(17회) 100만원
△ 신대수(10회) 20만원	△ 김정성(13회) 30만원	△ 아우기(17회) 10만원
△ 오강욱(10회) 200만원	△ 정철기(13회) 30만원	△ 이일영(17회) 10만원
△ 이봉원(10회) 10만원	△ 김경일(15회) 1000만원	△ 이정호(17회) 1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서정욱(15회) 10만원	△ 이종길(17회) 10만원
△ 임호웅(10회) 20만원	△ 손부흥(15회) 500만원	△ 이종희(17회) 100만원
△ 전영대(10회) 20만원	△ 이상모(15회) 30만원	△ 이형우(17회) 100만원
△ 정승석(10회) 50만원	△ 하정부(15회) 10만원	△ 장승구(17회) 200만원
△ 조양제(10회) 1000만원	△ 강종국(16회) 10만원	△ 전경명(17회) 100만원
△ 허영오(10회) 200만원	△ 강진중(16회) 10만원	△ 정광부(17회) 100만원
△ 공상기(11회) 100만원	△ 여성국(16회) 10만원	△ 정태일(17회) 100만원
△ 김재근(11회) 30만원	△ 강주수(17회) 10만원	△ 정해표(17회) 10만원
△ 백연균(11회) 30만원	△ 권경술(17회) 100만원	△ 제양성(17회) 50만원
△ 심재룡(11회) 20만원	△ 김길호(17회) 100만원	△ 조용운(17회) 30만원
△ 강수현(12회) 200만원	△ 김동수(17회) 500만원	△ 조중언(17회) 500만원
△ 강창수(12회) 30만원	△ 김동조(17회) 10만원	△ 천용광(17회) 10만원
△ 구봉근(12회) 30만원	△ 김두백(17회) 10만원	△ 최단식(17회) 5000만원
△ 권시길(12회) 20만원	△ 김무부(17회) 100만원	△ 최성호(17회) 1000만원

△ 추봉실(17회) 10만원	△ 이병찬(23회) 300만원	△ 박재백(30회) 30만원
△ 하영수(17회) 300만원	△ 이상수(23회) 50만원	△ 박정태(30회) 30만원
△ 허종언(17회) 30만원	△ 이종호(23회) 100만원	△ 서강태(30회) 10만원
△ 황중부(17회) 10만원	△ 전영조(23회) 200만원	△ 서민석(30회) 60만원
△ 현대일(17회) 100만원	△ 전원익(23회) 30만원	△ 서복현(30회) 100만원
△ 17회마산동기회(김무산, 송인창, 정광우, 최좌삼) 100만원	△ 정상건(23회) 200만원	△ 서재원(30회) 30만원
△ 김길제(18회) 1000만원	△ 조현표(23회) 50만원	△ 서하수(30회) 200만원
△ 김재창(18회) 50만원	△ 채행윤(23회) 100만원	△ 송영환(30회) 100만원
△ 김준길(18회) 100만원	△ 최인식(23회) 50만원	△ 송한식(30회) 30만원
△ 류종우(18회) 30만원	△ 하복진(23회) 20만원	△ 신범주(30회) 30만원
△ 박서도(18회) 20만원	△ 하영근(23회) 50만원	△ 신영주(30회) 30만원
△ 박준성(18회) 20만원	△ 24회 동기회 4500만원	△ 신윤원(30회) 30만원
△ 황광건(18회) 100만원	△ 25회 동기회 6470만원	△ 안종화(30회) 100만원
△ 강영범(19회) 10만원	△ 김진철(25회) 1000만원	△ 오경태(30회) 10만원
△ 김경재(19회) 100만원	△ 박명우(25회) 30만원	△ 왕순모(30회) 30만원
△ 김문기(19회) 20만원	△ 강영년(26회) 100만원	△ 유영복(30회) 10만원
△ 김봉호(19회) 500만원	△ 김상현(26회) 500만원	△ 유재일(30회) 10만원
△ 김석운(19회) 20만원	△ 김우갑(26회) 50만원	△ 윤성택(30회) 1000만원
△ 김양근(19회) 50만원	△ 김종우(26회) 200만원	△ 윤인태(30회) 50만원
△ 김영우(19회) 100만원	△ 김태권(26회) 10만원	△ 윤종순(30회) 30만원
△ 김정국(19회) 10만원	△ 김형(26회) 200만원	△ 이광봉(30회) 30만원
△ 김철호(19회) 100만원	△ 김호용(26회) 200만원	△ 이광희(30회) 20만원
△ 남기진(19회) 100만원	△ 박권병(26회) 200만원	△ 이기환(30회) 30만원
△ 박동화(19회) 300만원	△ 박상호(26회) 500만원	△ 이영준(30회) 30만원
△ 박종화(19회) 100만원	△ 배용호(26회) 50만원	△ 이인길(30회) 50만원
△ 성낙출(19회) 100만원	△ 성재업(26회) 50만원	△ 이학수(30회) 700만원
△ 안정모(19회) 20만원	△ 성재일(26회) 200만원	△ 이한수(30회) 20만원
△ 이용만(19회) 10만원	△ 양준영(26회) 50만원	△ 이환기(30회) 30만원
△ 이용홍(19회) 1000만원	△ 왕정일(26회) 100만원	△ 인준승(30회) 20만원
△ 이장희(19회) 100만원	△ 이규생(26회) 70만원	△ 임영수(30회) 50만원
△ 장홍의(19회) 500만원	△ 이상원(26회) 100만원	△ 임영호(30회) 30만원
△ 최화익(19회) 10만원	△ 이순철(26회) 50만원	△ 장영조(30회) 30만원
△ 황태경(19회) 20만원	△ 이영택(26회) 100만원	△ 정영호(30회) 100만원
△ 황태원(19회) 1000만원	△ 정거든(26회) 100만원	△ 정승진(30회) 30만원
△ 황호근(19회) 100만원	△ 정국근(26회) 100만원	△ 정재화(30회) 60만원
△ 강석근(20회) 300만원	△ 정의교(26회) 50만원	△ 천성일(30회) 10만원
△ 강영환(20회) 10만원	△ 조일제(26회) 10만원	△ 최상호(30회) 50만원
△ 김세준(20회) 100만원	△ 하원규(26회) 500만원	△ 최영규(30회) 20만원
△ 김일석(20회) 100만원	△ 하주근(26회) 50만원	△ 최우철(30회) 500만원
△ 김태선(20회) 300만원	△ 류재걸(27회) 10만원	△ 최재봉(30회) 100만원
△ 김태영(20회) 500만원	△ 윤종탁(27회) 10만원	△ 추태명(30회) 10만원
△ 김형오(20회) 1000만원	△ 이요섭(27회) 30만원	△ 하규양(30회) 100만원
△ 박병철(20회) 500만원	△ 구영소(28회) 100만원	△ 하전근(30회) 10만원
△ 박영준(20회) 100만원	△ 김명영(28회) 100만원	△ 허영재(30회) 30만원
△ 백문준(20회) 100만원	△ 김용석(28회) 10만원	△ 황철민(30회) 100만원
△ 신원기(20회) 200만원	△ 김형진(28회) 100만원	△ 30회 울산동기회 450만원
△ 이실근(20회) 100만원	△ 김홍중(28회) 100만원	△ 공광욱(31회) 50만원
△ 장상배(20회) 300만원	△ 노영현(28회) 200만원	△ 공종렬(31회) 12만원
△ 장춘식(20회) 10만원	△ 박석환(28회) 100만원	△ 김경영(31회) 12만원
△ 정규식(20회) 300만원	△ 송명석(28회) 20만원	△ 김기정(31회) 100만원
△ 정용환(20회) 300만원	△ 윤경섭(28회) 100만원	△ 김만(31회) 100만원
△ 차상근(20회) 200만원	△ 이원철(28회) 300만원	△ 김성수(31회) 300만원
△ 채경석(20회) 200만원	△ 한수범(28회) 50만원	△ 김영철(31회) 12만원
△ 최정하(20회) 300만원	△ 김기영(29회) 50만원	△ 김재술(31회) 60만원
△ 한기완(20회) 100만원	△ 김대우(29회) 3000만원	△ 김정덕(31회) 12만원
△ 허남근(20회) 300만원	△ 김석운(29회) 30만원	△ 김정택(31회) 12만원
△ 21회 동기회 4710만원	△ 김영기(29회) 10만원	△ 김중호(31회) 120만원
△ 김우홍(22회) 300만원	△ 김인술(29회) 100만원	△ 김진국(31회) 12만원
△ 민훈기(22회) 10만원	△ 박동일(29회) 50만원	△ 김태근(31회) 100만원
△ 이동열(22회) 100만원	△ 박성철(29회) 200만원	△ 김판덕(31회) 12만원
△ 장성복(22회) 1000만원	△ 송희태(29회) 50만원	△ 김현주(31회) 12만원
△ 조운재(22회) 200만원	△ 양승오(29회) 80만원	△ 김현율(31회) 12만원
△ 김동욱(23회) 200만원	△ 윤형근(29회) 50만원	△ 남기태(31회) 200만원
△ 김동욱(23회) 50만원	△ 이경호(29회) 100만원	△ 남철우(31회) 60만원
△ 김상영(23회) 50만원	△ 이석조(29회) 500만원	△ 류명석(31회) 100만원
△ 김영기(23회) 200만원	△ 임광열(29회) 100만원	△ 박경수(31회) 200만원
△ 김용기(23회) 20만원	△ 장만(29회) 100만원	△ 박석기(31회) 100만원
△ 김진복(23회) 20만원	△ 정길(29회) 100만원	△ 박인정(31회) 12만원
△ 김태용(23회) 100만원	△ 정성훈(29회) 100만원	△ 박종규(31회) 100만원
△ 노영배(23회) 200만원	△ 강석철(30회) 30만원	△ 박희암(31회) 12만원
△ 박수갑(23회) 100만원	△ 권영인(30회) 30만원	△ 배정우(31회) 12만원
△ 서영수(23회) 100만원	△ 권용택(30회) 50만원	△ 서동균(31회) 12만원
△ 손근식(23회) 100만원	△ 김기업(30회) 50만원	△ 서수교(31회) 100만원
△ 송충송(23회) 50만원	△ 김백수(30회) 30만원	△ 성오용(31회) 12만원
△ 신상희(23회) 100만원	△ 김상직(30회) 10만원	△ 손은정(31회) 12만원
△ 안병을(23회) 20만원	△ 김성복(30회) 10만원	△ 손정수(31회) 24만원
△ 안병화(23회) 20만원	△ 김세일(30회) 30만원	△ 손진기(31회) 12만원
△ 옥치범(23회) 200만원	△ 김순대(30회) 10만원	△ 신상하(31회) 12만원
△ 원인건(23회) 200만원	△ 김옥성(30회) 10만원	△ 신수열(31회) 12만원
△ 육병천(23회) 20만원	△ 김재수(30회) 30만원	△ 심규열(31회) 12만원
△ 윤순련(23회) 200만원	△ 김종진(30회) 30만원	△ 심재홍(31회) 12만원
△ 이동성(23회) 100만원	△ 김창근(30회) 30만원	△ 안기수(31회) 24만원
△ 이문희(23회) 200만원	△ 김해근(30회) 200만원	△ 안우현(31회) 60만원
	△ 김현태(30회) 100만원	△ 오민일(31회) 300만원
	△ 박동욱(30회) 50만원	△ 오용환(31회) 120만원
	△ 박원호(30회) 100만원	

△ 윤정수(31회) 20만원	△ 최재호(31회) 12만원	△ 백수현(33회) 50만원	△ 박준표(38회) 20만원	△ 안광근(41회) 10만원	△ 44회 동기회 500만원
△ 이병태(31회) 100만원	△ 최진섭(31회) 200만원	△ 서재영(33회) 100만원	△ 오희진(38회) 10만원	△ 유수호(41회) 10만원	△ 김해지역동창회 300만원
△ 이석우(31회) 12만원	△ 최해영(31회) 12만원	△ 신용준(33회) 10만원	△ 이종명(38회) 300만원	△ 윤성보(41회) 20만원	△ 뉴질랜드동창회 50만원
△ 이승진(31회) 12만원	△ 최효식(31회) 60만원	△ 익병(33회) 1000만원	△ 김도경(39회) 20만원	△ 이경석(41회) 50만원	△ 부산교통공사야구회
△ 이재웅(31회) 24만원	△ 하학열(31회) 120만원	△ 한상봉(33회) 100만원	△ 김진호(39회) 20만원	△ 이경호(41회) 30만원	100만원
△ 장건호(31회) 12만원	△ 한광규(31회) 12만원	△ 34회 동기회 1000만원	△ 양정교(39회) 10만원	△ 이양걸(41회) 200만원	△ 사하지역동창회 300만원
△ 장성호(31회) 12만원	△ 허일현(31회) 12만원	△ 이재완(34회) 500만원	△ 한성호(39회) 10만원	△ 이종민(41회) 10만원	△ 재동경문회 200만원
△ 장재훈(31회) 12만원	△ 홍성수(31회) 120만원	△ 이진호(34회) 200만원	△ 김영진(40회) 10만원	△ 이주하(41회) 30만원	△ 김정옥(전 경중 재직 교사)
△ 장평우(31회) 300만원	△ 김창범(32회) 20만원	△ 김동인(35회) 10만원	△ 강병오(41회) 10만원	△ 이준석(41회) 10만원	100만원
△ 정문(31회) 120만원	△ 이병준(32회) 100만원	△ 김병수(35회) 10만원	△ 강서희(41회) 10만원	△ 장익조(41회) 10만원	△ 남석희(전 경고 재직 교사)
△ 정인화(31회) 12만원	△ 허규(32회) 10만원	△ 황윤승(35회) 10만원	△ 김기영(41회) 10만원	△ 정필상(41회) 10만원	30만원
△ 정정남(31회) 132만원	△ 계동원(33회) 30만원	△ 김철원(36회) 100만원	△ 김병성(41회) 20만원	△ 천성원(41회) 10만원	
△ 정철수(31회) 500만원	△ 김기산(33회) 10만원	△ 이동희(36회) 30만원	△ 김봉준(41회) 30만원	△ 최호열(41회) 10만원	
△ 조성근(31회) 12만원	△ 김범영(33회) 2000만원	△ 임창섭(36회) 10만원	△ 김형렬(41회) 50만원	△ 추교용(41회) 30만원	
△ 조영기(31회) 24만원	△ 김재선(33회) 10만원	△ 김길영(37회) 20만원	△ 남관희(41회) 30만원	△ 허치회(41회) 50만원	
△ 조현우(31회) 12만원	△ 김종인(33회) 12만원	△ 김원범(37회) 10만원	△ 류지섭(41회) 30만원	△ 홍동훈(41회) 30만원	
△ 천장호(31회) 12만원	△ 류장근(33회) 100만원	△ 박용진(37회) 50만원	△ 박정기(41회) 20만원	△ 홍석우(41회) 50만원	
△ 최경우(31회) 32만원	△ 류홍영(33회) 30만원	△ 조영규(37회) 20만원	△ 백선민(41회) 10만원	△ 41회 산악회 30만원	
△ 최봉근(31회) 12만원	△ 박명진(33회) 2500만원	△ 홍원석(37회) 10만원	△ 변영호(41회) 10만원	△ 이용상(43회) 10만원	
△ 최상규(31회) 12만원	△ 박성병(33회) 10만원	△ 황태운(37회) 10만원	△ 신동진(41회) 20만원		

합계 : 8억 7,534만원

기금기탁 관련문의

동창회 사무실 황유명
Tel. (051)245-7551~3
Fax. (051)245-7550

2011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2011년 12월 28일 기준

* 총 2,959명 / ()는 2012년도분 선납부자

- 1회(4명) 박병현 박상필 정동식 허중수
- 2회(1명) 박기하
- 3회(18명) 김용해 김희철 노관택 류영림 문병집 박인창 박준안 백영하 손주서 송두호 신정택 신현이 원호출 이경 이안규 정규일 한준서 황성남
- 4회(23명) 고재환 김경식 김기홍 김상희 김유수 김중호 김중환 김주호 김홍숙 김희수 문태상 박석만 양종학 이남규 이명주 임영수 장수호 정상천 정순모 정치근 조오제 조홍제 황갑생
- 5회(29명) 고광순 김석호 김영복 김인택 김재관 김진규 김형태 박병호 박봉식 박창우 박종우 박종상 박종규 상기중 송두성 우명수 유병환 이경욱 이문기 정경인 정진우 정필조 정희준 조갑제 진도영 최영철 최원규 홍관식 황홍성
- 6회(35명) 권후성 김상업 김태근 나오연 노제형 문교순 박기복 박영대 박재호 박종근 배문수 배상환 배종권 변영수 오영은 유성환 이갑상 이현우 이희태 임경택 정재수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상현 정승화 조관승 조재형 조정규 현산우 최갑영 최병수 최석원 최한범 허택 (선영수)
- 7회(42명) 강창구 구택용 김갑성 김광욱 김택재 김명환 김사룡 김삼현 김영민 김용우 김중경 김중순 김태배 노해규 류상남 박재봉 박관배 배진식 배병우 변수근 서우찬 소진은 송외복 양종환 오동환 윤진현 윤치우 이광철 이등우 이민희 이상주 이진호 이상범 이태범 이효명 임성근 전연호 정보영 정성보 최장익 함홍주 허종호 (김웅우)
- 8회(38명) 강성태 구본섭 권승걸 김동훈 김봉길 김상식 김지선 김재범 김진석 노재복 노은영 문동현 문문화 박동열 박우상 박재범 배기현 배덕수 배주원 백나오 서진근 안종열 엄태영 윤태영 이상목 이윤호 이종택 이종택 이준기 이현문 이호수 이희순 이희욱 정금출 조유제 지창수 최낙범 최재혁
- 9회(52명) 강영진 고수용 김기관 김동용 김성택 김영국 김영문 김이도 김정규 김홍호 김형 김택성 노도현 박광식 박광희 박영복 박한복 박희철 삼백규 신석현 신용익 안규현 안병환 원종희 유근영 유병현 윤일명 이기주 이동현 이대규 이순경 이영구 이주환 장동근 장병국 전인규 정복정민주 조규대 조규양 조석우 조성진 조이호 조용길 지삼봉 차진한 최성욱 최한성 한태대 한득추 황영선 황호승 (원종희)
- 10회(57명) 강희윤 고광수 고석명 고용제 권용술 김계순 김기호 김만희 김상규 김상규 김상태 김선동 김성규 김연수 김연태 김용원 김정학 김재관 박재경 박종문 박현제 배태기 서봉원 서원하 신종우 심영환 오강욱 우병운 윤태현 이민석 이병원 이상배 이승준 이연희 이의도 이정호 이재순 이지훈 이창복 이효술 장기상 장병태 장인득 장형구 전연태 정종만 조갑수 조양제 조종제 진강 차동열 최병도 최성일 하병용 하영수 허영오 허태원 11회(96명) 강병희 강동태 공상기 락정출 락태업 권병용 김달경 김부용 김병기 김병태 김삼진 김선길 김성규 김수정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원형 김인섭 김정수 김재근 김재환 김중수 김중하 김태호 김학수 김광만 김호민 남호현 문람 문정오 박관호 박봉용 박수경 박승우 박영하 박용관 박희태 배일규 백인규 서자운 서정호 서진갑 서기태 송인석 송호근 신대수 신유기 신현석 심재룡 안강태 안경문 양행두 양한호 오길훈 오란수 오정광 오종석 유홍중 유홍수 유재석 이강우 이계천 이동희 이명 이상석 이상철 이상태 이상학 이상훈 이상길 이재진 이정기 이종분 이종백 이종술 이태순 이해수 장대현 장병수 장영권 장영현 정연은 정은표 정우식 제정오 지창호 천근준 천동주 최봉연 최득호 최성욱 최창욱 최태원 하우무 현정준 (박희태)
- 12회(108명) 강본순 강수현 강이수 강종신 강창수 공문 구병근 구창희 박진영 권시길 권연호 권연상 권익 김기수 김기인 김민철 김병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철 김상희 김석근 김석주 김선일 김성찬 김수원 김영수 김홍호 김우성 김원경 김익도 김정욱 김중성 김중수 김중일

- 김지명 김지희 김진갑 김장진 김철기 김현찬 김호호 김희범 김철중 남기용 문재권 박근기 박보국 박상도 박상도 박순국 박영운 박영환 박용은 박인영 박재영 박정운 박장수 박호민 배기원 백승규 백창식 변동만 서병기 서상현 서태상 손재준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엄태섭 양학규 오세정 옥계환 윤학근 이상현 이상태 이수영 이승문 이승태 이승훈 이영길 이용언 이웅희 이원우 이일채 이준복 이현담 이환철 임우영 임정명 임창환 장동석 장일관 정지용 정대식 정수복 정외원 정호중 조한기 차수명 천길태 최병진 최병준 한준배 한행수 허은도 홍두표 (최병준)
- 13회(117명) 강기동 강진조 강영삼 고승구 권영제 권영태 권영환 김간용 김규현 김동호 김무 김무조 김민철 김상환 김성태 김승기 김승언 김신부 김영명 김장용 김정근 김정성 김정일 김종학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김형태 김홍석 김홍수 김홍철 노경규 문기찬 문창 박관일 박안남 박한길 박일웅 박종택 박진태 박용일 박홍욱 변종길 박대걸 배정은 서대희 서시주 서영용 서영환 손진익 송태일 송신의 신동배 신명신 신원철 신용태 신하근 심관섭 심진영 안준수 양갑승 양광희 양상찬 양원수 양한수 윤기갑 윤영우 윤준우 윤태호 이경재 이경준

- 함영철 허민영 허준
- 15회(87명) 감기주 감무송 감민조 감부부 감정일 구병준 권대식 권승부 김김영 김보명 김대영 김삼용 김소현 김합열 김양일 김양정 김욱규 김윤배 김정환 김종태 김종환 김중기 김창규 김형영 남기주 남남순 노기수 명도근 박세갑 박영길 박영길 박영우 박정서 박찬호 박철양 박호기 배성훈 서정욱 성한표 손부용 송길승 신동은 신용기 신현영 오봉석 원성용 윤취정 이상호 이상근 이순구 이승남 이승우 이상훈 이정부 이재현 이종명 이준 이지도 이철성 이필연 임영길 장봉고 장종호 정갑수 정석우 정영부 정준수 정홍 조규중 조상호 조영일 조인람 주상학 주정준 최진도 최태지 최병우 최원수 최의수 하정부 한진출 한혜수 허경도 허광길 허종덕 홍상석 홍익찬 (서정욱 신현영)
- 16회(118명) 강동관 강성권 강영주 강인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권의강 금성규 김광수 김길정 김덕택 김박일 김상용 김양현 김연호 김영우 김중진 김근구 김일규 김정근 김정부 김철호 김조 김철석 김천문 김철근 김철길 김태일 김판규 김현오 김형석 김휘부 노상현 노원소 문성환 민병률 박광자 박두영 박민소 박소용 박영기 박용일 박원호 박종봉 박종영 박홍방 수근 배정희 서고명 서병용 서정호 서태복 서호조 설희순 서기식 서경식 서운석 송규정 송태남 안국형 양성민 양희부 여성국 예광호 오광치 오정일 오형철 옥무용 윤석 유영명 윤영식 윤호주 이경일 이계용 이광빈 이규방 이근우 이명수 이무근 이무영 이병욱 이상태 이상원 이선규 이상근 이영재 이종승 이종철 이재현 이원희 이효일 임승언 임실 장사중 전도봉 정신국 정영일

- 18회(91명) 강대원 강민수 강영호 강인식 강정일 고병현 고창현 곽병태 김경길 김경권 김귀언 김동희 김두현 김사권 김상근 김성수 김성준 김순근 김용기 김재철 김재창 김정기 김종상 김중진 김중철 김지호 김철수 김현무 김형윤 노정규 류종우 문희여 박건태 박노숙 박덕봉 박도형 박동오 박상욱 박서도 박성철 박용 박용주 박용희 박종우 박종문 박준성 박호성 백승배 서부원 서재봉 서종규 서차수 설현기 손영종 양용길 오재동 우원호 유영석 유봉수 이근배 이근희 이벽수 이대은 이승수 이성일 이승훈 이영호 이일수 이흥기 이흥남 이형석 임영철 임재영 전상근 전영석 정우용 정재호 조성재 최경용 차명서 채수일 최진수 최희영 한동욱 허만조 홍순배 홍우재 홍창우 황광근 이범남명2명 (윤봉수 좌경우)
- 19회(116명) 강영범 강환성 곽광호 고문환 공영섭 김경우 김경재 김근수 김대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재 김봉호 김석규 김석윤 김성봉 김성욱 김성진 김성희 김수권 김순호 김영득 김영우 김영진 김영택 김윤기 김인선 김일택 김정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규 김철호 김형택 남기진 남진현 남태현 문관진 박갑진 박동하 박상식 박성주 박성현 박종호 박자현 배두삼 배영우 서세복 서무관 성낙훈 손말현 손원수 신동원 신원철 심재구 안정모 양승수 양하기 오일환 옥인영 유문환 윤영규 이근식 이기주 이명환 이상만 이상우 이상달 이수현 이상환 이윤만 이용용 이윤홍 이정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준만 임영수 임정주 임채원 임태재 장준호 장홍의 정규범 정극수 정기영 정종학 정수남 정용식 정윤영 정태을 조경래 조성환 조세현 조순재 조재용 진수상 진홍재 최광우 최상현 최영식 최정학 최희의 탁준식 한명섭 한종환 허남길 허홍우 홍성봉 황선진 홍승표 황태경 황태원
- 20회(91명) 강경수 강병현 강서근 강위수 강현진 구본홍 구영남 김두영 김대섭 김명표 김성룡 김성환 김세준 김순신 김우홍 김원갑 김일석 김종민 김주경 김진환 김전만 김태영 김한성 김한원 김형기 김형오 김홍석 김화식 남경원 남기석 북일진 문광은 문성재 문형남 민영기 민형기 박옥양 박용택 박종락 박종락 박준 박현용 박태수 박형준 배정호 배준태 백완근 서상희 설정환 손승철 신용환 신원기 신태관 심두수 심원섭 안승태 안태운 어정호 오경석 오기현 윤병규 윤봉태 이권기 이범추 이실근 이영오 이우홍 이종열 이천규 장상배 장준식 전우식 전일준 정국욱 정규식 정명순 정세현 정승창 정승호 조영철 조운태 차상근 채경석 최병호 최정하 최종경 최원 한계정 허규만 허남근 홍순태 (강병현 양승태 오기현)
- 21회(121명) 강민우 강산태 감수경 감순석 강영도 강욱현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강화중 공기화 구정모 구현수 권윤호 김대용 김동우 김동현 김문건 김병협 김부근 김상덕 김석배 김순일 김형삼 김형달 김유진 김일근 김조영 김지호 김한규 김현태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병욱 박봉용 박영석 박일승 박종우 배영일 배일백 배태상 변창섭 서석수 서병문 서정원 성상철 성정근 손양덕 손원호 송원경 신태은 심광섭 심상진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기근 우성근 유일근 육태원 윤대희 윤상현 윤순근 이강남 이동재 이동훈 이문수 이삼기 이성집 이세진 이세영 이순희 이영훈 이영규 이임덕 이재택 이재호 이재훈 이재용 이정규 이종원 이종범 임성출 임정기 장호 전재호 전우성 정수훈 정연호 정익주 조갑식 조병규 조상호 조하래 조현국 조현영 조호제 진영현 최규용 최동완 최민석 최수명 최원복 최은영 최종민 최정희 박원범 한광수 한대은 한운대 한인환 한형철 허영도 허정수 황동규 황영실 황윤성 (강산태)
- 22회(117명) 강준홍 강봉기 강상태 강성봉 강호일 강희목 고인준 구자용 권영우 김광규 김광우 김도실 김동명 김동진 김명수 김명준 김명호 김무술 김성재 김수열 김승규 김완식 김우홍 김일봉 김일준 김정근 김정민 김진영 김진철 김찬수 김창두 김창해 김학규 김해원 김형경 문성철 문원경 박관화 박상갑 박승목 박연규 박재순 박재상 박준호 박관명 박필민 박형철 박호병 박홍조 반병일 방영수 배병환 배성안 배준식 배호원 배훈영 배봉주 변대석 변종호 부근시 부장현 서경덕 손병용 손연오 손용섭 송기영 송현준 안계환 안동진 안진환 안홍철 여삼규 여찬기 오세길 유인조 유재택 윤기현 윤관복 이동열 이상주 이승휘 이영화 이영규 이지백 이흥기 장광훈 장무성 장성태 장성복 장영근 장남식 정동철 정상수 정진식 정해진 조운재 조장현 조정규 조홍기 주성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2011년 한해 동안 구독료를 내주신 동문님은 총 2,959명(2011년 12월 28일 기준)입니다. 경남중고동창회보는 매호마다 1만6천부를 인쇄해 동문들에게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보 인쇄 및 발송부수가 1만6천부 인데도 정작 구독료를 내주시는 분이 3천명도 안됩니다. 이런 실정이라서 제작경비 부족으로 동창회보 제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발송비를 제 때 주지 못해 애를 먹기도 합니다. 제발 2012년도에는 꼭 구독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로 회보를 제작,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이명진 이상분 이상빈 이용용 이유경 이은재 이일희 이정명 이정호 이준범 이종열 이창호 이현석 이원세 이태남 이태만 임소철 임영출 장영길 장용출 전복룡 전준신 정덕지 정로상 정문태 정은숙 정은섭 정종현 정철기 제병민 조병성 조용갑 조준택 조철현 차영일 최동환 최번영 최상호 최태환 추지서 한관수 한민조 한진희 허갑도 황일인 황정태 (이일희 장용출 정문태 제병민)

14회(82명) 강수현 공홍일 구자신 김동화 김성부 김수웅 김영대 김영식 김영우 김원근 김용규 김용우 김일갑 김재도 김창선 김홍 김형수 김화욱 남기우 남우준 남성수 노수덕 문성필 문운용 박남조 박병선 박철수 박철길 박정길 박정훈 박해동 반미태 반성호 반태호 성이경 손광용 신기서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안명수 오성환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우 이근하 이동식 이동영 이수남 이안부 이재준 이창원 이창화 이철근 이환근 이호근 이훈일 장병용 장우일 전상배 정상진 정선연 정현규 정원 조규환 조기정 조영복 진선대 최건자 최나희 최봉원 최성욱 최종택 최태만 하관봉 한규환 한수길

정우광 정원철 조운일 조원제 조홍제 차상영 채경일 최영욱 최정일 허주영 허홍근 하희진 한수계 허홍욱 홍운전 홍정길 황규정 황규오

주우실 최광욱 최영택 최인용 최형민 최희필 하현성 한경규 한근태 한태길 한영우 허남평 허범도 허승조 허은홍태구 황영환

23회(128명) 김인홍 김구현 김창보 고용석 구대용 구영수 구준욱 권오중 김기열 김갑수 김덕우 김동욱 김동욱 김상수 김상영 김상현 김상호 김석현 김성덕 김성호 김영기 김영목 김영철 김원정 김원진 김익근 김재봉 김정복 김정환 김주찬 김중광 김태성 김태용 김태훈 김태봉 남상봉 노영배 문규현 문명욱 문창호 박광규 박석관 박수갑 박인권 박재안 박종만 박철병 배종순 배준석 백정영 서상병 서영수 서영수 서한민 송영훈 송은재 송충송 신경재 신해철 신수병 안범우 안병관 안병을 안병화 안성민 안피진 오도준 옥치범 유훈복 유석산 유원행 유진우 윤만수 윤병조 윤순현 윤일환 윤종관 이대우 이동성 이병구 이병용 이병찬 이부식 이상현 이상수 이상환 이우백 이 순 이승구 이윤원 이윤석 이원희 이일원 이정욱 이종용 이종호 장기원 장대익 장동국 장병규 장부주 전수진 전상대 전영조 전재홍 정갑윤 정귀홍 정기용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정희원 조규직 조맹제 조민제 조유중 조한용 조현표 채병은 최인식 최인표 최은홍 최오덕 하복진 하승은 허기웅 허대동 허병상 홍영희 (윤순현)

24회(121명) 김동우 김장덕 김정홍 공문수 광두희 구자용 권상철 권해영 김경남 김규철 김덕용 김덕용 김동운 김민복 김명배 김무성 김성근 김성덕 김수용 김승탁 김영건 김영만 김영민 김영식 김영철 김우중 김운섭 김유신 김인구 김홍환 김준기 김진용 김학성 김한근 김현태 김형덕 김호기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박만기 박명렬 박성표 박영근 박인호 박정문 박종복 박창호 박태식 박홍규 변용준 변정규 서순상 서정대 서정복 서석민 서정철 경 손세영 손종식 송태근 신병식 신장우 이상수 안행모 안행수 안순권 양희복 여철우 원동희 원봉준 윤지현 이기원 이동진 이동희 이명복 이상찬 이 수 이재능 이재성 이정희 이창무 이한영 이현태 이호규 임덕철 임민호 장민재 장성기 장세호 장현동 전태현 전상현 전운우 정광용 정기호 정동수 정명근 정무열 정영덕 정영석 정철화 조규근 조병제 조용건 조용하 조태홍 진병건 차동렬 차문광 최원주 최진우 최연규 태창업 하성기 하재갑 한상렬 한승철 허구연 홍용기 홍성동 황성훈

25회(98명) 강석철 강우주 권수갑 권태용 고명식 김건우 김경환 김구화 김갑수 김남일 김대현 김덕우 김동식 김동진 김 령 김봉철 김상겸 김상수 김성환 김수국 김수용 김수석 김인수 김열회 김옥근 김용범 김우형 김장현 김재용 김정태 김정하 김중근 김중만 김중택 김중현 김진철 김철수 김태선 문재인 박거환 박동근 박명우 박원규 박세철 박정용 박종기 박종찬 박현구 박호철 박홍기 배동명 백승익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서창재 서정철 손국영 손지용 송영근 송영기 송효상 안용운 오양득 윤희대 예종복 이재성 이대우 이동익 이동희 이철원 이석희 이상훈 이홍익 이상택 장선근 전선태 정수성 정진배 정철수 정영성 조광제 조대우 조익 최상봉 주재걸 진익철 최동하 최영관 최차환 탁준길 태명산 한준석 허만택 허 태 (진익철)

26회(120명) 김도식 김명원 김수남 고경환 고석훈 권영인 김기성 김두현 김만석 김상현 김영철 김영태 김용춘 김우철 김재수 김재용 김정근 김정현 김중택 김중현 김철원 김재영 김태규 김태근 김택영 김희래 김 령 김호용 나정우 노영석 문상원 박경재 박남식 박대현 박만식 박복수 박상호 박원세 박인석 박장현 박재욱 박종국 박중호 박만기 박호대 박홍기 박용호 박홍규 백문현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욱호 신기용 신대철 신동훈 신재호 안갑호 양주영 양희권 왕정일 왕호석 유근우 유경일 윤수현 윤승용 윤종섭 이경호 이규생 이규용 이기주 이명진 이상돈 이상원 이상근 이상만 이순철 이승부 이유상 이용희 이재학 이정근 이종진 이주창 이주형 이원학 이원근 이원섭 이희준 장만욱 장원용 장희석 정국근 정문기 정수진 정영문 정원철 정이교 정태현 조민규 조일제 조태용 조래금 지용섭 차인식 추정규 최성락 최영선 최희수 최창호 하성봉 하원규 하주근 한창화 함재우 현동우 홍청근 홍형택 황광수 이복남명1명 (이규용)

27회(84명) 강병호 강용병 강주훈 강태영 곽태홍 권명보 공민배 김경중 김경진 김광철 김병욱 김병철 김상문 김성주 김인석 김영삼 김원보 김원용 김일우 김재연 김철도 김중훈 김지연 김진명 김 철 김갑우 김태은 김호균 김홍근 김활열 김홍근 나찬희 류재길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승준 박정민 박종국 박치호 박호근 반정열 백민호 신한원 안종택 양태종 오용환 유성모 윤모성 윤정환 윤종락 윤지현 이기우 이광현 이만부 이봉춘 이상용 이원철 이요섭 이인규 이정원 이종찬 이현식 이 철 이현 이형복 장성철 장창조 장재성 전태현 전 풍 정두식 정인화 정원재 조민제 조봉관 조유수 천우태 박승주 하영제 한상훈 한수갑 황지명 이복남명1명 (이규용)

28회(98명) 강용수 강현안 권기택 권수원 권태세 김판세 김남규 김대생 김도현 김동수 김민준 김부용 김영철 김용섭 김용희 김준배 김준연 김창준 김철수 김태관 김형진 노영배 노영현 노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문 박성권 박영규 박영제 박진국 박진주 박진희 박호석 배명철 백부현 백영호 백진수 서기희 서영대 성택만 손광택 신영수 신종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임보용 임재홍 우건식 유승일 윤경섭 윤덕승 윤대주 윤명일 윤일희 이경포 이만재 이만우 이승하 이상훈 이용남 이용일 이윤규 이윤태 이정기 이종대 이종환 이창순 이준선 임광수 임익선 임재덕 전광범 전병철 전재대 전진화 전희명 정백수 정인식 정해영 조대현 조서태 주중복 주창석 천병조 최강호 최경태 최광해 최연욱 최한용 한기웅 한봉석 한영호 허명근 황태봉 황훈성 이복남명1명 (신준현 윤명일)

29회(110명) 강대용 강성훈 곽태식 권오영 권용대 금시환 김갑태 김기민 김기수 김기영 김기원 김대연 김병욱 김부근 김상규 김영준 김용식 김인술 김중명 김중진 김재현 김진영 김철우 김태완 김태호 김형일 김호성 류영광 문복섭 문창건 민동식 박경환 박광수 박근우

박기찬 박동일 박문규 박병복 박성철 박인근 박인평 박정환 박창언 박정수 박준도 배현호 백성욱 변종만 서봉교 서석희 손영보 손용택 손재찬 손태권 송철호 송희태 신병철 신영주 신필근 신현수 신홍기 안정용 양길용 양성봉 양승오 오경호 오세용 윤석희 윤종경 윤선영 윤형근 이병건 이병우 이상진 이석조 이수돈 이승호 이승훈 이 양 이상호 이우신 이정윤 이재한 이준환 이호근 임용호 장강태 장 반 전영상 전창화 전현수 정 김 정대현 정순정 정종기 정진환 조창열 조한욱 주재휘 최기훈 최문성 최정만 최종열 하현태 한관수 한승경 허광욱 현계성 황용명 이복남명1명 (문복섭)

30회(118명) 강 석 김석철 구용석 권용택 김경남 김경섭 김기섭 김기열 김백수 김병기 김성복 김성은 김승범 김영욱 김영일 김영호 김옥성 김용환 김유기 김인섭 김정용 김재수 김재일 김종진 김종필 김진영 김창근 김태근 김현태 노동훈 도문성 마정수 박규원 박병규 박성태 박수승 박용석 박원호 박재백 박중배 박진명 박진수 박희관 배기경 배승환 배종민 배기연 서강태 서민석 서복현 서창덕 서하수 손승락 송철수 송한식 신구근 신도현 신인기 심풍수 안종화 오경일 유익진 유영목 유재일 유현덕 윤영학 윤인태 은현수 이광희 이근우 이기환 이동근 이동대 이상필 이석기 이수성 이영준 이철열 이종현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환기 이준순 장석일 장훈상 전경태 전은석 전준호 정광덕 정규용 정기봉 정부광 정성원 정순진 정준호 정용하 정제화 정태현 정해석 조순영 조승환 조용업 현성일 재영재 최거훈 최금석 최석렬 최영규 최우철 최원수 최진근 하규양 하영동 허선행 허영재 홍인기 황민민

31회(86명) 고영호 공광욱 공종필 김경영 김관호 김병우 김시현 김영철 김영학 김정택 김종근 김중호 김창환 김태근 김민덕 김현주 김호성 김요연 남경수 남기태 남철우 노용환 류명석 문성일 박경수 박덕중 박삼열 박세환 박용관 박인정 박중호 박준석 박준열 박희암 배정우 서동근 서태고 서보경 손영태 신상하 신수열 심재홍 안우현 안종수 양문석 양석환 오민일 오용환 옥봉규 옥치호 유석중 이태철 이병근 이병태 이상일 이상식 이승원 이재용 장근도 장성호 장부석 정용정 정원규 정정남 정철수 조대진 조영기 조현우 차인용 천창호 최경우 최문삼 최상규 최상용 최재선 최재식 최재호 최주홍 최진섭 최태영 하명수 하병관 허일현 홍 구 홍성수 이복남명1명

32회(50명) 김광기 김대식 김상범 김영길 김영현 김재학 김정열 김홍식 김창환 김해재 류성렬 류현희 문창진 민길식 박상하 박성규 박우상 박종석 박종우 박효식 신국선 신명환 신동형 신한국 안병철 안태원 안문성 양성기 양한광 우득현 유기근 윤종업 이광우 이명환 이병준 이병훈 이석호 이승건 이종수 이진규 이태운 이환용 임재근 장문석 정용순 정용문 정의주 조준식 최영훈 최재영 (김중식 이병준)

33회(62명) 계동원 고창성 공진현 김근수 김기산 김범영 김재도 김재선 김재익 김종만 김종민 김종현 김진일 김 철 김 희 남경태 노동현 류장근 류종남 민병현 박병제 박민진 박성범 박치호 박태경 박태원 박태중 방만준 배성만 배종현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성립 송재봉 신동현 신용준 안동분 안영훈 안천도 양승국 오형선 예영찬 윤태용 이 건 이광호 이동근 이상진 이윤조 이창훈 장남규 장정석 정영호 정인식 조영화 주기훈 최석현 최영두 최용남 최호경 한상봉 황규태

34회(33명) 강승기 과수관 구동희 김규혁 김동욱 김두섭 김영욱 김태하 김희영 노인선 문종철 박기훈 박재욱 박중수 박철호 양철용 오상민 오승대 옥재욱 이광희 이은수 이재환 이진호 장창명 정노래 정영호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진상봉 최광필 홍승철

35회(36명) 구자민 김기원 김동일 김병환 김세정 김우경 김우신 김정환 김태관 김홍근 나동욱 노규정 류인수 박세종 박희병 백용운 성창용 손수봉 손태섭 안종일 이남기 이남철 이병일 이복근 이영오 이원우 이상성 임형 전성철 조홍섭 주귀홍 천현석 재인석 최근식 홍성표 황용순

36회(44명) 과상호 권일복 김근수 김길호 김덕환 김병국 김병주 김성복 김수진 김영록 김중오 김동일 김준안 김원철 김현호 김희환 남우진 문용민 박영준 박영찬 박철중 신동택 안영호 안재익 양석용 윤용수 이동희 이성호 이수수 이원석 이정영 이종국 인사용 임창섭 임창익 정갑영 정인석 주보훈 최승호 최필선 최필주 최재철 한형식 홍의창

37회(33명) 강태우 권기원 김민호 김성현 김영근 김영광 김영태 김원범 남지현 문진형 문화영 박규배 박윤진 박이관 석영태 성성주 안명도 안지태 양규수 이상백 이종고 이진수 제갈재환 조성현 조성식 조영규 최규철 하태민 허부남 허 찬 홍원석 홍병일 황태운

38회(28명) 과동열 김문철 김상규 김석규 김성철 김영철 김원철 김판준 김현민 남기정 노재원 류인식 문귀상 문이현 박준표 박준홍 심재영 오승언 유관재 윤경만 이창호 정인철 정준기 조용철 주재훈 최 철 최규경 홍승의

39회(20명) 김기원 김도경 김윤용 김중업 김희영 배효민 손석호 신동준 윤동배 이상태 이준영 이진호 이창훈 장영욱 장유혜 정도연 정성운 정진해 진조석 권윤준

44회(22명) 강경호 김경조 김수용 김재영 남경민 박서근 박천익 배봉건 서영민 송동근 우도균 이대환 이창용 임정훈 정영민 정종윤 조영호 조현우 진성재 최종배 박정환 한수성

45회(11명) 김성남 김은수 박상화 박 울 장성의 정상의 박상화 신상호 오승현 이규진 진상영

46회(3명) 강석빈 김동희 이주용

47회(6명) 고담우 김동민 성상용 임형길 장문기 정기주

49회(4명) 김성재 김학규 전선우 최진영

50회(7명) 김재윤 박인창 박현욱 안개영 유차수 이상준 최용호

52회(1명) 김용혜

53회(1명) 이재홍

55회(1명) 김태연
*기수불명(11명) 김경도 김상현 김세희 김용환 박수일 박수임 신시연 이상열 이종규 조명관 최수진
*기수&이름불명(2명)
*기타(1명) 성한진
*해외(12명) 미 북가주지역동창회

구독료 관련 문의
본부동창회 사무실 황유명 국장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2011년도 회비 납부현황 (2011년 12월 28일 기준)

1. 회장단

■ 회 장: 오거돈(21회) 3,000만원

■ 자문위원: 양종학(4회) 한동대(9회) 오완수(11회) 허민영(14회) 박찬호(15회) 송규정(16회) 김준연(17회) 박가식(17회) 김길제(18회) 김영우(19회) 남진현(19회) 장홍의(19회) 황태원(19회) 구영남(20회) 박용덕(20회) 이상 100만원
이길상(6회) 50만원

■ 수석부회장: 허범도(22회) 500만원

■ 명예부회장: 김형오(20회) 100만원

■ 부 회 장: 박상호(26회) 500만원

강창수(21회) 이병찬(23회) 송정규(25회) 류명석(31회) 박명진(33회) 장인화(35회) 정운성(35회) 이상 300만원
서덕수(21회) 여환부(21회) 임경범(21회) 전우성(21회) 조호제(21회) 최원종(21회) 박홍조(22회) 이부식(23회) 정상진(23회) 광두희(24회) 김수용(24회) 노상우(24회) 박창호(24회) 정영환(24회) 김진철(25회) 박맹우(25회) 박종찬(25회) 최동하(25회) 박영민(27회) 윤경섭(28회) 이원철(28회) 최강호(28회) 박성철(29회) 조한욱(29회) 김현태(30회) 서하수(30회) 윤성덕(30회) 최우철(30회) 오민일(31회) 김법영(33회) 류장근(33회) 김용백(34회) 이재완(34회) 허부남(37회) 김경환(40회) 우영환(40회) 백창봉(41회) 이상 100만원
■ 감 사: 박철병(23회) 김태우(27회) 이상 100만원

2. 동시기

(단위: 원)

기수	본부 납입금	모교야구 후원금	계
9회	500,000	200,000	700,000
10회	600,000	-	600,000
11회	600,000	300,000	900,000
12회	600,000	300,000	900,000
13회	900,000	-	900,000
14회	900,000	500,000	1,400,000
15회	900,000	500,000	1,400,000
16회	-	-	-
17회	-	-	-
18회	1,200,000	800,000	2,000,000
19회	1,200,000	800,000	2,000,000
20회	1,500,000	1,000,000	2,500,000
21회	1,500,000	1,000,000	2,500,000
22회	1,500,000	1,000,000	2,500,000
23회	1,500,000	1,000,000	2,500,000
24회	1,500,000	1,000,000	2,500,000
25회	1,500,000	1,000,000	2,500,000
26회	1,500,000	1,000,000	2,500,000
27회	1,500,000	1,000,000	2,500,000
28회	1,500,000	1,000,000	2,500,000
29회	1,500,000	1,000,000	2,500,000
30회	1,500,000	1,000,000	2,500,000
31회	1,500,000	1,000,000	2,500,000
32회	1,200,000	800,000	2,000,000
33회	1,200,000	800,000	2,000,000
34회	1,200,000	800,000	2,000,000
35회	-	-	-
36회	1,200,000	800,000	2,000,000
37회	-	-	-
38회	1,200,000	800,000	2,000,000
39회	900,000	500,000	1,400,000
40회	-	-	-
41회	900,000	500,000	1,400,000
42회	900,000	500,000	1,400,000
43회	900,000	500,000	1,400,000
44회	-	-	-
45회	500,000	200,000	700,000
46회	-	-	-
47회	-	-	-
48회	-	-	-
49회	-	-	-
50회	-	-	-
총계	35,500,000	21,600,000	57,100,000

■ 삶의 현장... 용마가 달린다④ / '용마횃집' 경영하는 오용환 동문(31회)

“횃집을 하더라도 ‘용마’ 답게 하겠다는 각오로..”

맛 좋은 회를 합리적 가격으로 내놓는 것이 영업전략

오용환 동문(31회)이 경영하고 있는 '용마횃집'은 우리 동문들에게 친근한 업소다. 부산 민락동 바닷가의 10층 빌딩의 2층에 있는 용마횃집은 회 맛이 좋은데다가 광안대교가 한 눈에 들어오는 등 전망이 뛰어난 횃집으로 유명하다. 특히 우리 동문이 직접 경영하는 횃집이어서 믿고 이용하는 동문이 많다.

오 동문이 이 횃집을 개업한 것은 5년 전. 대학(동아대 건축과) 졸업 후 울산 포항 제주 진주 등 4곳에서 육조 세면기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경영하다가 중국산 싸구려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 횃집을 냈다. 전공분야도 아닌데 하필이면 횃집을 내게 됐느냐는 말에 그는 "원래 내가 회 먹는 걸 무척 좋아했고 오래 전부터 제대로 된 횃집을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답했다.

처음해보는 횃집이었으나 그는 남다른 영업 전략과 성실함으로 개업 5년 만에 '광안리에서 알아주는 횃집'으로 키워냈다. 장사가 잘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횃집을 대주는 도매상들이 우리 집이 광안리의 수많은 횃집들 중에서 5등 안에 든다고 말하더라"는 말로 답했다. 횃집이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보다 광안리 일대 횃집들에 횃감을 대주는 수산물도매상들이 제일 잘 안다.

그의 영업전략은 간단명료하다. '신선한 횃감으로 맛있게 회를 만들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는 "횃집을 직접 해보고는 기존 횃집들의 횃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또 가격에 비해서 쓰끼다시 등 음식의 질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합리적인 가격에 다른 집들에 비해 파격적으로 음식의 질을 높였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윤이 그만큼 줄어드나 대신 손님 숫자를 늘려서 많이 팔면 된다는 설명이다.

'용마횃집'은 다른 횃집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째, 회를 뜰 때 회에 절대 물을 묻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최소 2~4시간정도 회를 냉장고에 넣어 숙성시킨 뒤 손님에게 내놓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쫄기쫄기한 회 특유의 맛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셋째, 회를 이것저것 섞어서 내놓지 않고 접시마다 한 종류씩의 회를 담아내고 팻말을 꽂아 각 접시에 담은 회가 어떤 회인지를 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 동문에 따르면 수족관에서 활어를 꺼내 만든 '즉석 회'와 냉장고에서 숙성과정을 거친 '숙성 회'는 맛이 천양지차라는 것. 회에 물을 묻히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로 씻은 회는 냉장고에서 숙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용마횃집은 다행히 예약 손님이 90%나 돼 손님 도착시간에 맞춰서 미리 회를 만들어 숙성시켜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것.

그는 또 같은 어종이라도 작은 고기보다는 큰 고기의 회가 훨씬 맛이 좋다고 조언했다. 물론 큰 고기는 값이 그만큼 비싸지만 맛있는 회를 먹고 싶다면 큰 고기를 택해야 한다는 것.

오 동문은 "큰돈은 없으나 그동안 우리 동문들이 많이 도



오용환 동문. 그는 "동문들이 오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한다.

와주었기에 이 정도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가게 이름에 감히 '용마'를 내 건 것은 횃집을 하더라도 '용마'답게, 남다르게 잘 해보겠다는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횃집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유명 편집위원(29회)〉

동창회 일꾼들

33회 동기회 총무 장정석 동문

후배 총무들까지 챙기는 '총무 중의 총무'

33회 동기회는 '어느 동기회보다 단합이 잘 되는 동기회'로 소문나 있다. 이에 대해 무려 8년째 동기회 총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장정석 동문은 "동기들이 회장단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그러나 33회 동기회가 잘 굴러가고 있는 배경에는 동기회의 실력꾼인 장 동문의 헌신과 열정이 큰 몫을 하고 있음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는 회장단을 도와서 33회 동기회의 잡다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일 외에도 33회 동기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본부동창회 홈페이지의 <행사앨범>이나 <포토게시판>에 33회 동기회 활동을 담은 사진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올리고 있다.

장 동문의 동창회 사랑은 동기회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을 만큼 뜨겁다. 그는 33회 이후 기수의 동기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후배들을 두 달에 한번 꼴로 만나고 있다. 각 기별 동기회 총무들의 모임인 '경총회'가 4, 5년 전부터 시들해지자 그가 나서서 후배 총무들을 챙기고 있다는 것. "후배들이 동창회에서 소외받는다느니 느낌을 가질까봐서" 자신이 나섰다라는 설명이다. 그가 '총무 중의 총무'라는 평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기별야구대회를 이끌고 있는 '덕령리그'의 총무도 맡고 있다.

건축내부 인테리어공사업체를 하고 있는 장 동문은 대학 2학년인 큰 딸과 초등학교생인 10살짜리 늦둥이 딸을 둔 '딸딸이 아빠'다.



41회 동기회 총무 류지섭 동문

동기회 회장 거친 뒤 총무 맡아... 봉사정신 투철

류지섭 동문은 서울에서 직장에 다닐 때에는 재경동기회 회장을 했고(1996년~97년), 직장을 그만두고 부산에 내려온 뒤에는 부산동기회 회장(2001년~2002년)을 했다. 그런 그가 2010년 9월부터 동기회 총무를 맡고 있다.

회장을 거친 뒤에 총무로 일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이에 대해 그는 "직전 회장이 도와달라고 하기에 봉사하지는 마음에서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의 동기회와 동창회에 대한 열정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류 동문은 "우리 41회 동기회는 단합이 잘 되는 편"이라며 "특히 4년 전 발족한 '41산악회'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매달 정기산행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원거리산행도 해오고 있다는 것. 그는 4년 전부터 41회 동기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 운영해오고 있다. 동기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이 홈페이지에는 매일 평균 100명 정도가 접속할 만큼 동기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류 동문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동기회모임에 보통 30여명 정도만 참석하고 있다"며 "새해에는 아직 동기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동기들을 찾아내 참여시키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13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친이 해오던 공중목욕탕(부산 사하구 신평동)을 물려 받아 경영하고 있다.



동기회 소식

◇ 14회 = 동기회관 개관 16주년 기념식

지난해 10월 21일 김경일 자문위원, 김학현 동기회장 등 16명의 동기생이 참석한 가운데 '동기회관 개관 16주년 기념식'을 갖고 구포집에서 축하 회식을 가졌다.

◇ 17회 = 신입회장에 이형우 동문 선출



지난해 12월 16일 부산진 소재 '협성부페'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박신도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병문 감사의 감사 보고, 모교발전기금 모금의 건, 2012년도 예산안 등이 토의됐으며 신입회장으로 이형우 동문이 선출되었다.

◇ 19회 =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송년회

재경동기회(회장 박성철)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크우드 호텔에서 동기 및 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갖고 퀴즈게임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산동기회(회장 윤영규)는 12월 14일 자갈치 명물횃집에서 동기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

◇ 24회 = 차기회장으로 하재갑 동문 선출

지난해 12월 6일 자갈치 소재 '오아제'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하재갑 동문이 선임되었다.

◇ 28회 = 차기 회장에 서영대 동문 선임



지난해 12월 6일 연산동 소재 '해암뷔페'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서영대 동문이 차기회장으로 선임되었다.

◇ 33회 = 통영 미륵산 가족등반대회

지난해 11월 6일 통영 미륵산 일원에서 가족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등산에 앞서 거제도의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와 기념관을 방문 관람하고 이어 미륵산 일대를 등산한 뒤 퀴즈대회, 노래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36회 = 신입회장에 김병주 동문 선임

지난해 12월 14일 연산동 'T3샤브샤브'에서 송년회를 개최.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행사 보고, 30주년 홈커밍데이 추진 위원장 및 차기회장 선출 보고, 모교발전기금 모금 등이 토의했으며 신입 회장으로 김병주 동문이 선임되었다.

◇ 41회 = 조원호, 이경호, 류지섭 동문에게 감사패

지난해 11월 23일 '연양숯불갈비집'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26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수입 및 지출 내용, 2012년 연회비 및 회장단 분담금 인상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동기회를 위해 힘써 준 조원호, 이경호, 류지

어디서 무엇을...

<8회>

△박재범 = 12월 17일 차남 결혼, 롯데호텔 서울

<9회>

△김성탁 = 경남 양산시 중부동 696 양산 신도시 대동A. 101동 1202호 △성백규 =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595-4 럭키A. 11동 302호 △유병철 = 울산 방어진요양병원 원장, 011-419-6411 △최한성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756-1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2단지A. 207동 1402호

<10회>

△정무길 = 11월 26일 차남 결혼, 서울 외교안보회관

<12회>

△문정수 = 11월 8일 '문정수와 함께하는 영화음악콘서트' 개최,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임창완 =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유립2차A. 204동 107호

<13회>

△김무조 = 11월 26일 차녀 결혼, 부산 수영로교회 △박정석 = 12월 10일 딸 결혼, 서울 명동성당 △백명조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삼환A. 102동 702호 △옥종석 = 12월 11일 차녀 결혼, 서울컨벤션 △윤영우 = 12월 24일 장남 결혼, 수원 호텔리츠 컨벤션웨딩 △이상삼 = 부산시 남구 용당동 신대연오몽하늘채A. 105동 501호 △임진부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168-8 구학마을A. 109동 1403호 △정규청 = 12월 18일 장모상, 삼성서울병원 △조광수 = 12월 3일 부친상, 부산대학병원 △최병영 = '법무법인 세현' 공증 변호사

<14회>

△박남조 = 11월 19일 차남 결혼, 라스코 스웨딩홀 △정삼영 = 12월 11일 차남 결혼, 창원호텔 △故이상준 = 11월 20일 장녀 결혼, 더마리스웨딩컨벤션

<15회>

△고태연 =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15번길 16 망미동터삼파크리치 104동 1305호

△김경일 = (주)정공산업 대표이사, '제8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 동탑산업훈장 수상 △안경숙 =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2가 175 동부산아이존빌A. 102동 1604호 △유지영 = 9월 16일 상배 △이동근 = 12월 10일 장남 결혼, 감천중앙교회 △임영길 = 부산시 동래구 연안로74 프란체A. 208동 1704호 △최병우 = 10월 22일 부친상 △하영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716 동광A. 205호

<16회>

△문성환 = 12월 3일 차녀 결혼, 해운대그린나래호텔 △이종득 = 1월 7일 딸 결혼, 센텀임페리얼호텔 △이동백 = 12월 16일 부인상 * 재경동창회 신년회 = 1월 16일 저녁 6시 서울 메리츠빌딩 지하1층 자스민홀 (강남역 2번 출구)

<17회>

△김영환 = 12월 10일 장남 결혼, 부산 센텀사이언스파크웨딩홀 △송인창 = 11월 28일 부친상, 마산의료원 △오무현 = 11월 20일 장녀 결혼, 서울가든호텔 △이상수 = 12월 3일 차녀 결혼, 서울 엘루체컨벤션 △정동길 = 11월 20일 장남 결혼, 롯데호텔부산

<18회>

△김재창 = 11월 26일 차녀 결혼, 서울 대검찰청예식장 △안창범 = 12월 24일 장남 결혼, 롯데호텔부산

<19회>

△계웅찬 = 경남 양산시 평산동 봉우A. 209동 904호 △고문찬 = 12월 24일 장남 결혼, 서울 GS타워 △김광욱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현진에버빌A. 101동 1002호 △권철현 = 전 주일대사, '세종재단부설 세종연구소' 이사장 취임. 12월 1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간 큰 대사, 당당한 외교' 출판기념회 △백홍기 = 11월 19일 장남 결혼, 해운대 팔레드시즈 △오영철 = 11월 27일 딸 결혼, 서울 수아비스 △이만호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287-1

△최경근 = 11월 26일 아들 결혼, 서울 세종호텔 △탁준식 = 12월 16일 모친상, 한양대학병원

<20회>

△김종기 = 1월 8일 장녀 결혼, 서울가든호텔 △유근준 = 10월 31일 장모상, 서울 을지병원 △장병두 = 12월 24일 장녀 결혼, 엠스테이트컨벤션 △정용환 = 12월 10일 장남 결혼, 코모도호텔

<21회>

△강수경 = 1월 14일 장남 결혼, 부산 남천성당 △김태순 = 11월 27일 모친상, 삼성의료원 △권영순 = 11월 19일 장남 결혼, 서울 곤자가컨벤션 △고성복 = '경희대 해외통포 문학상' 소설부문 우수상 수상 △김영문 = 12월 13일 부친상, 건국대학병원 △김종진 = 12월 18일 장녀 결혼, 서울컨벤션 △이문수 = 12월 3일 장녀 결혼, 해운대센텀호텔 △이성희 = 11월 3일 모친상, 부산 영락공원 △이종상 =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취임 △이현영 = 11월 26일 딸 결혼, 포항 W컨벤션 △전경수 =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서울대가 주는 '2011학년도 학술연구상' 수상자로 선정 △전기환 = 11월 26일 차녀 결혼, 부산 W웨딩 △전우성 = 1월 8일 장남 결혼, 코엑스인터컨티넨탈 △정병철 = 12월 3일 장녀 결혼, 서울 은누리교회 △조호제 = 1월 14일 장녀 결혼, 창원 웨딩그랜드 △최정립 = 12월 10일 장녀 결혼, 진주 월드웨딩홀 △황병구 = 11월 3일 부친상, 진주중앙병원

<22회>

△이우경 = 12월 11일 장녀 결혼, 한국프레스센터 △전길홍 = 11월 19일 아들 결혼, 서울 코엑스 △조정규 = '법무법인 정평' 이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7-23 GT타워 23F. (02)3487-7444 △최형민 = 12월 3일 딸 결혼, 서울 GS타워 △하현성 = 12월 18일 아들 결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3회>

△강구현 = 11월 19일 아들 결혼, 서울 은누리교회 △김영기 = 11월 12일 장남 결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김택수 = 1월

7일 차남 결혼, 남서울교회 △장대익 = 12월 18일 장남 결혼, 해운대그린나래호텔 △장찬규 = 11월 19일 부친상, 서호병원 △정기문 = 11월 27일 빙부상, 삼성서울병원 △정용성 = 12월 24일 모친상, 남천장례식장 △최태인 =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취임 △한명경 = 12월 18일 장녀 결혼, 롯데호텔서울

<24회>

△권해영 = 12월 11일 차남 결혼, 부산 남천성당 △김삼수 = 11월 20일 차녀 결혼, 진주 동방호텔 △김승탁 = 11월 14일 장녀 결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김정권 = 식당 '바위섬' 개업,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47 씨플렉스B/D 4F (051)757-8834 △이희대 = 11월 19일 장남 결혼, 서울컨벤션 △임민호 = 12월 17일 장남 결혼, 마리아컨벤션웨딩홀 △장성기 = 12월 15일 빙부상, 부산 봉생병원 △정영학 = 1월 7일 딸 결혼, 서울 뉴힐탑호텔 △정용기 = 1월 1일 장녀 결혼, 강남웨딩컨벤션 △조백인 = 12월 23일 아들 결혼, 신라호텔 △최연호 = 11월 12일 장남 결혼, 서울 국회후생관 △최진우 = 11월 14일 모친상

<25회>

△김영수 = 12월 3일 아들 결혼, 롯데호텔 서울 △김효태 = 11월 26일 딸 결혼, 서울 KW컨벤션센터 △박건수 = 12월 3일 장남 결혼, 씨사이드 웨딩홀 △박종찬 = (주)제이텍 대표이사, 11월 12일 공장 신축 이 전식, 경남 밀양시 북북면 전사포리 890-6, (055)384-9400 △우경욱 = 10월 31일 부친상,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이동석 = 12월 17일 장녀 결혼, 부산 남천성당 △최재환 = 12월 11일 장남 결혼, 부산 KT웨딩홀

<26회>

△김영명 = 12월 13일 부친상, 건국대학병원 △김진수 = 12월 3일 장녀 결혼, 마리아컨벤션웨딩홀 △김태규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로 11-84 롯데캐슬 111동 1104호 △김호용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한림푸르지오 106동 904호 △박능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50-1 △박상호 = (주)신태양건설 회장, <13면에 계속>

설 동문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지역, 직능동창회 소식

◇ 사하지역동창회 =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지난해 12월 1일 하단소재 강촌해미리타운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격려사 및 집행부 소개,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조규항 동문(14회, 동아대 총장) 오거돈 본부 동창회장, 조경태 동문(40회, 국회의원) 등 1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 울산지역동창회 =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지난해 12월 9일 울산 소재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용마의 밤 행사를 개최.

이날 총회에는 박대동 동문(23회, 전 금융감독원장), 정갑윤 동문(23회, 국회의원), 박병우동문(25회, 울산시장) 등 100여명의 동문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 창원지역동창회 =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지난해 12월 7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동문과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수용 회장(24회)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이기우 동문(27회,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윤인태 동문(30회, 창원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올해의 용마대상’은 이천식 동문(27회)에게, 공로패는 이상열 동문(23회)과 안정모 동문(32회)에게 각각 주어졌다.

◇ 기독교동문회 = '제9회 동문초청 만남의 밤' 개최



지난해 10월 31일 영도 홀리조이센터에서 '제9회 동문초청 만남의 밤'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으며 테너 최화진 교수의 열창이 있었다.

◇ 등대회 = 신입회장에 백창영 동문 취임

지난해 12월 6일 대한통운 부페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

개최. 오거돈 동창회장 등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주우실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백창영 동문(23회 · 협성해운 대표)이 신입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용마회 = 송년의 밤 개최



전 현직 부산시 공무원 모임인 용마회는 지난해 12월 19일 국제호텔에서 송년의 밤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거돈 본부동창회장(21회), 조규우 동래구청장(16회),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 (20회), 정영석 등구청장(24회) 등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2부에서 여흥의 시간도 가졌다.

11월 11일 센텀뷰 라움 오피스텔 분양홍보관 오픈식, 해운대 우동 롯데갤러리움 센텀 E동 207호, 문의(051)747-3133 △박용석 = 10월 29일 장모상, 부산의료원 △박재창 = 1월 7일 장녀 결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배기호 = 11월 20일 장인상, 서울아산병원 △유평진 = 울산시 중구 복산2동 성지A, 101동 503호, 12월 3일 장녀 결혼, 서울 엘타워 △이양춘 = 1월 7일 장남 결혼, 창원 미래웨딩캐슬 △이용희 = 12월 10일 장모상, 삼성서울병원 △함재우 = 12월 14일 장인상, 가천의대 길병원

<27회>

△김민기 = 12월 21일 장모상, 서울 삼성의료원 △김형철 = 12월 23일 부친상, 인천 중앙병원 △박규욱 = 11월 14일 부친상, 해운대백병원 △배인환 = 11월 27일 장녀 결혼, 서울 노블레스웨딩컨벤션 △서기룡 = 11월 12일 장녀 결혼, 울산 MBC컨벤션 △신한원 = 1월 7일 장녀 결혼, 해운대 그린나래호텔 △최용수 = 12월 22일 장녀 결혼, 노보텔엠베서더강남 △최인성 = 12월 18일 장남 결혼, 대구 오월의 정원 △추재희 = 11월 26일 아들 결혼, 캐나다 토론토 트리니치칼리지 채플 △탁승주 = 10월 26일 모친 별세, 인천 중앙병원

<28회>

△강태길 = 'LG전자' SCM 그룹장 △구영소 = 11월 12일 장남 결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김관세 = 10월 28일 장인상, 동아대병원 △김용희 = 12월 25일 장녀 결혼, 부산 해리움웨딩홀 △이종환 =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취임 △김준연 = 11월 15일 부친상, 양산 부산대학병원 △박영규 = 10월 30일 모친상, 부산 영락공원 △배철영 = 11월 3일 장인상, 서울아산병원 △송기춘 = 12월 15일 장모상, 이화여대 부속목동병원 △옥상곤 = 10월 29일 모친상, 서울 보라매병원 △우경원 = 10월 31일 부친상,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대권 = TV조선 기술기획팀장 △홍성민 = 12월 3일 부친상, 서울 삼성의료원 △하병상순 = 1월 15일 딸 결혼, 누리엔웨딩홀

<29회>

△김규찬 = 11월 4일 부친상, 서울 적십자병원 △김대욱 = TM마린(주) 대표,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0 벽산E-센텀 래스원 602호 △김한일 = 1월 7일 장녀 결혼, 부산 농심호텔 △박동하 = 11월 28일 모친상, 부산대병원 △박병태 = 1월 7일 장녀 결혼, 서울 헤리츠 △박영기 = 'YK안과' 개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42, (02)512-5975 △배현호 = 12월 10일 장인상, 함안장례식장 △이병건 = (주) 녹십자 사장, 대한약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2011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신약기술개발대상 수상 △이병우 = 12월 18일 모친상, 삼성서울병원 △전득산 = 12월 17일 장남 결혼, 서울 독성 갑보리교회 △정진수 = 'LG실트론' 전무 승진

<30회>

△김경남 = 12월 11일 장녀 결혼, 서울 아펠가모 △김정욱 = 'MBC' 예능3국 기획제작1부장 △김진권 = 11월 26일 딸 결혼, 부산 남천성당 △박세우 = 'LG전자' 파나마 법인장 △안종화 = 12월 3일 모친상, 인제대 부산백병원 △장정찬 = 11월 30일 부친상, 서울아산병원 △정문열 = 11월 15일 모친상, 부산대병원 △최거훈 = 사무실 이전, 부산시 서구 부용동1가 20-30 풍국B/D 3F, (051)241-0801, △함주혁 = 12월 13일 장인상, 울산 영락원

<31회>

△고영호 = 10월 28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구자윤 = 11월 23일 빙부상, 부산의료원 △김진식 = 10월 27일 모친상, 부산영락공원 △김태근 =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 영남지사장,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2235-8 △김효연 = 11월 17일 부친상, 양산 부산대병원 △민중현 = 12월 15일 장인상, 인천중앙병원 △박준석 = 12월 4일 모친상, 부산의료원 △송병훈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 지역협력팀장

<32회>

△곽동훈 = 'GS건설' 상무(토목해외영업 담당)

<33회>

△성두대 = '창녕오케스트라' 창단 초대

지휘자 취임 △박명진 = (주)고려개발 회장, 11월 11일 부원역세권 복합단지 아이스케이 기공식 및 부원역 대우푸르지오 APT 모델하우스 오픈식, 김해시 부원동 부원푸르지오홍보관 △이호인 = 노스페이스 대리점 개업, 부산시 북구 덕천동 부산은행 옆, (051)334-8700

<34회>

△류승우 = 12월 8일 모친상, 감천S중앙병원 △홍승철 = 11월 30일 장인상, 대구 파티마병원

<35회>

△김세정 = 12월 13일 부친상, 인창요양병원 △김용진 = 11월 20일 부친상, 부산 위생병원 △김인수 = 12월 13일 모친상, 울산 굿모닝병원 △김정환 = 'CJ(BIO)' 중국 요성 공장장 △박윤섭 = '에스엔피로지스틱스(S&P Logistics)' 대표,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 A 동 1510호, (02)2093-7153 △박종만 = 11월 23일 부친상, 일산병원 △박현렬 = 중앙대 교수, 국제 유희학회 초대회장 임명 △신승우 = 11월 1일 모친상, 대구 동산병원 △정재형 = 11월 8일 모친상, 과적범일병원 △채인택 = 중앙일보 논설위원 △허진 = 외교통상부 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위원회 국장

<36회>

△김덕재 = 12월 10일 모친상, 한중프라임장례식장 △성귀호 = 11월 8일 부친상, 고신의료원

<37회>

△김영일 = 11월 4일 모친상,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황창식 = 10월 31일 부친상, 기장병원

<38회>

△신석현 = 11월 27일 모친상, 삼성서울병원 △윤승준 = 11월 10일 장인상,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임춘수 = 11월 30일 모친상, 영락공원 △정인철 = 11월 28일 장인상, 동아대병원 △조용철 = (주)신화플러스건설대표, 부산 남구문현동815 한일O/T 307호, 016-9766-6617

<39회>

△강현수 = 11월 19일 모친상, 남해병원

△김원범 = 'LG전자' 상무이사 승진 △유재영 = 'GSEPS' 상무 승진 <40회> △양영렬 = 'CJ(BIO)' 신소재센터장 <41회> △백선민 = 11월 28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45회> △이성근 = 10월 30일 모친상, 한서병원 △장세찬 = 11월 28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부음

▲김정태(5회) = 12월 22일 별세 ▲김을환(8회 · 영도) = 11월 30일 별세 ▲김영학(8회) = 필립산업(주) 회장, 11월 7일 별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오제웅(8회) = 12월 10일 별세 ▲윤종철(14회) = 11월 8일 별세, 부산 해양병원 장례식장 ▲윤영식(16회) = (주)세동 회장, 12월 15일 별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이철웅(16회) = 서울, 안과 의사, 12월 14일 별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김동현(21회) = 인터컨티넨탈서울호텔 대표, 11월 27일 별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박제근(23회) = 하이프로 대표, 12월 2일 별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손수일(25회) = 10월 29일 별세, 굿모닝병원 장례식장 ▲조재구(26회) = 12월 2일 별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정동진(28회) = 11월 9일 별세,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 ▲김성학(33회) = 12월 7일 별세, 보훈병원 장례식장

◇ 정정 = 지난 호 이 부음란에 보도된 <김관규(16회) 별세>를 <김관규 동문(16회)의 부친 별세>로 바로 잡습니다. 기사 입력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습니다. 김동문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과 <부음> 관련 제보 투고 및 문의는 본부동창회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1) 245-7551~3

용마산악회 일본 구중산 원정 참가기

산행 후 노천탕에 몸 담그고 정겨운 대화

언젠가 한번은 현해탄을 건너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왔다. 용마산악회가 일본 오이타현에 있는 구중산(1,787m)에 원정 등산을 간다기에 얼른 신청해 따라갔다 왔다.

지난해 11월 18일 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41명의 참가자들을 만났다. 몇 분의 선배님과 동기들 외에는 전부 초면이다. 그런데도 모두들 오래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것처럼 반겨들 주신다. 동문이란 이렇게 좋은 것이다. 여러 기수가 참가한 가운데 17회, 33회, 41회동문들의 팀웍이 특히 돋보였다.

우리들을 태운 카멜리아호는 부산항의 불빛을 뒤로하며 밤바다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갑판위에서, 방에서 어울려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튿날, 하카다항에 내린 우리들은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버스로 구중산 초입인 마키노토우계(1,330m)까지 이동, 단체사진을 찍은 뒤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다행히 비도 그치고 내리쬐는 햇살이 싱그러웠다. 여기저기서 뿜어져 올라오는 흰 연기는 이곳이 화산지대임을 실감하게 해준다.

산행구간의 고도차는 그리 크지 않으나 부석부석한 화산암 덩어리가 밭에 채이고 땅에 물기도 많아 걷기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밭길음이 가벼운 13회의 이일회, 장영길 선배님, 14회 김철현 선배님의 노익장이 놀라울 뿐이다. 17회의 김길호, 김승현, 박신도, 박재구, 박청홍, 이건우, 이형우,

박규배 (37회, KB국민은행 해운대PB센터장)

하영수 선배님도 역시 대단하고... 산에서 마주치는 등산객들이 대부분 한국사람들이다. 일본의 산까지 접수해버린 한국인들의 이 등산열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정준수(15회) 선배님의 형수님에 얽힌 에피소드. 아직 갈 길이 멀고 바람도 제법 거세지는데 형수님의 등산화가 자갈길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 밑창이 본체와 빈틈 분리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를 본 동문들은 도시락을 썼던 노끈을 모아 이어 붙여서 분체의 등산화에 칭칭 감았다. 나중에는 길가에 떨어져 있던 등산로 안내 보조 로프로 대체했지만 불편하긴 여전했다. 후미대장인 이철관 동문(33회)이 형수님을 경호하며 끝까지 모시고 내려와 인상적이었다. 아마도 형수님의 기억에 이번 등산이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을 듯...

어둑해져 하산을 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네 가게 앞에 마련된 무료 노천족욕탕으로 모여든다. 따뜻한 온천물

속에 발을 담그니 황제, 황후가 따로 없다. 히타(日田)에 소재한 숙소는 일본 전통어관에 가까운 호텔이었다. 짐을 풀고는 동문들끼리 노천탕에서 알몸으로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다. 일본식 카이세끼요리도 좋았다. 깔끔한 다다미방에 누워 잠을 청하자 요란한 계곡물 소리가 자장가로 들려왔다.

마지막 날, 출항 때까지 남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후쿠오카 인근에 있는 다자이후(太帝府) 천만궁을 둘러본 뒤 다시 카멜리아호를 탔다. 갑판위에서 알싸한 바람을 맞으면서도 두어시간 넘게 계속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흔들어대는



구중산 등산로 초입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찍었다.

우리네 아저씨 아줌마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과연 읍주거부에 능한 민족임을 실감했고 그것이 오늘의 K-팝 열풍을 있게 한 유전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거리낌없이 어울려 정을 나누며 하나가 된 시간들이었다. 이런 기회를 준 용마산악회에 감사드린다.

故 정동식 동문(1회)의 외손자가 쓴 '눈물의 思祖曲'

'K캡짱' 우리 할아버지

손성호 (고 정동식 동문 외손자)

이 글을 써 보낸 손성호 군은 서울대 자유선택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우리 동문들의 '영원한 만행'인 고인이 생전 일상생활을 통해 보여주었던 모교와 동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게 해주는 글이기에 소개한다. <편집자>

- 우리 할아버지는 캡짱 할아버지. 길을 나설 때면 언제나 'K'자가 새겨진 야구 선수 캡을 쓰십니다.

좋은 모자가 여럿 있지만, 오직 '용마'가 수놓인 'K캡' 쓰기를 고집하시지요.

내가 보기에 '용마 K캡' 쓴 할아버지가 멋져 보여요.

- 외출 길에 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산책하십니다.

아파트단지 벽을 따라 걸으면 유치원 앞길에 이릅니다.

유치원 친구를 만나면 "굿 모닝!" 하시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 '따각 따각' 지팡이를 짚고 조금 더 가면 할아버지의 종집입니다.

할아버지가 책 읽고 붓글씨 쓰시는 조그만 서실입니다.

경탁 위에 놓인 붉은 가죽 책 곁장에는 '묘법연화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느다란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 내려 갑니다.

방석 위에 단정히 무릎 꿇고 앉아 정성을 다하여 사경을 하십니다.

- 지금은 열두시 반.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도, 한 달 전에도, 일 년 전에도, 십 년 전에도 한결같이 지켜진 시간입니다.

경전과 서첩을 넣은 큰 가방을 메고 '용마 K캡 할아버지'

외출할 땐 언제나 '용마 K캡' 만 고집

삐요~ 삐요~ 저녁 때 쯤 병원 앰블란스가...

오늘은 할아버지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네요

할아버지 쓰시던 '용마 K 캡' 오늘은 내가 쓰고...

가 귀가하는 시간입니다.

- '삐요 삐요~ 삐요 삐요~'

저녁 때 쯤이예요. 병원 앰블란스가 왔어요.

머리에 '용마 K캡'을 쓴 할아버지를 이동식 간이침대에 눕혔어요.

할아버지를 실은 앰블란스가 삐요~ 삐요~ 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 할아버지 가슴이 많이 아프대요.

계속 병원에 계시면서 치료해야 한대요.

- 오늘밤엔 둘째 외삼촌이 할아버지 곁에서 지킴이를 한대요.

할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야구방송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들려 드려요.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나랑 야구놀이를 해주신 캡짱 할아버지거든요.

스트라이크, 아웃, 연타, 홈런

할아버지가 야구 이야기에 가끔씩 미소 지으세요.

-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굿 나잇!"

병실을 나서며 누워계신 할아버지께 밤 인사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호야도 굿나잇!" 하시며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파이 파이를 하실텐데

오늘은 할아버지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네요.

아무런 대답 없이 천정을 바라보며 손가락만 까닥이고 계시어요.

할아버지가 가끔씩 우리를 불러보시는 것 같아요.

- 할아버지 병실에 갑자기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곳곳에 흩어져 사시는 할아버지형제들과 친지들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후배들도 다녀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뻗어 악수를 청하시면 모두들 할아버지 손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 할아버지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자주 드나들고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할아버지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대요.

할아버지는 이제 아무런 음식을 드실 수 없대요.

- 할아버지가 외출할 때 쓰시던 '용마 K 캡'.

오늘은 내가 쓰고 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한국전쟁 때 충무무공훈장 받으셨던 할아버지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가요.

아빠 엄마 육이 누나랑 손잡고 "헬로, 캡짱 할아버지"하고 인사하러 가요.

“총선 앞으로!” 동문들 줄줄이 출사표

허범도 이기우 박인균 하영제 박대동 최거훈 동문 등 문재인 VS 김대식, 부산 사상에서 동문 선후배 대결? 현직 국회의원 동문들은 개혁공천 움직임 보여 관망 중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 중인 동문들이 저지 않았다. 이미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동문이 있는가 하면 공직에서 사표를 내거나 출판기념회를 여는 동문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쇄신과 개혁비판이 불고 있어 이들이 원하는 정당의 공천을 받게 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인 동문들은 당의 개혁공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출마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야권의 대선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동문(25회, 노부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허범도 동문(22회, 부산시 정부북부)은 경남 양산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하고 1월 10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자서전 '눈이 녹고 바람이 몸을 풀면 봄이 날아오더라' 출판기념회를 갖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기우 동문(27회,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은 창원(울)에서 출마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지난해 12월 3일 부산시에 사표를 냈다.

박인균 동문(29회)은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 의

정부(울)에서 출마하기 위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대식 동문(32회,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표를 내고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김 동문은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 문재인 동문과의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그러나 김 동문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될 것인지는 여부는 미지수다.

하영제 동문(27회,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경남 진주에서 출마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철현 동문(19회,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지난해 12월 1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는 부산 사상에서 출마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박대동 동문(23회, 한나라당 울산북구위원장)은 울산에서 출마하기 위해 12월 8일 울산 북구청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최거훈 동문(30회, 변호사)도 12월 27일 부산 부민초등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최 동문은 부산 서구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학영 동문(19회), 동주대 이사장 취임

정학영 동문(19회, 다나사요양병원 원장이) 동주대 학교법인 석파학원 제10대 이사장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선임됐다.



정 동문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 메리놀병원 정형외과 과장, 부산대 및 인제대 외래교수, 동주대 부학장을 역임했다.

석파학원은 동주대, 동주여고, 동주여중, 동주대 부속 유치원을 운영중이다.

송정규 동문(25회), '자랑스러운 해양대인'으로 뽑혀

송정규 동문(25회, 한국도선사협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한국해양대에서 '자랑스러운 해양대인'으로 뽑혔다.



송 동문은 또 12월 3일 최동원 기념 야구 박물관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서준희 동문(26회),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으로

서준희 동문(26회)이 지난해 연말인사에서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으로 발령받았다.

서 동문은 지난 3년간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해왔다.

서 동문은 앞으로 삼성사회공헌위원으로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및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그룹 스포츠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종환 동문(28회), 서울경제신문 부회장으로

이종환 동문(28회)이 지난해 12월 6일자로 서울경제신문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 동문은 1984년 한국일보에 입사,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 겸 부사장, 서울경제TV 사장을 지내고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김성태 동문(28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해양대서 특강

김성태 동문(28회,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스마트 사회를 향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해양대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특강에는 오거돈 회장 및 해양대 관계자, 본부동창회 사무실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허선행 동문(30회), GS건설 부사장에 선임

허선행 동문(30회)이 지난해 12월 7일 정기 임원인사에서 GS건설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허 동문은 성균관대 기계공학도를 졸업하고 1982년 대우건설을 거쳐 1988년 GS건설에 입사, 해외영업3팀장, SP9-10Project담당, 중동주재담당 등 플랜트 사업의 주요 보직을 수행해왔다.

■ 포토갤러리



사무치는 마음으로 한밤중에 달려간 모교

몇 년 전 업무 차 잠시 부산에 들렀을 때다. 동문선배와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 선배가 불쑥 "학교에 가본지 오래 됐제? 지금 한번 가볼래?"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현 듯 모교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아내는 "아니, 이 밤중에..."하고 망설였지만 나는 급한 불이라도 있는 양 서둘렀다.

깜깜한 밤 모교의 교문 앞은 조용했다. 고교시절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 왔다. 그리운 그때 그 시절이다. 졸업 후 흩커밍 때 말고는 처음 가본 모교였다. 교문을 배경으로 아내와 함께 사진 한 장을 찍고 돌아섰다. 외국에서 살면서 나이가 들고 보니 가끔 학창 시절과 모교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다. 그럴 땐 이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달래곤 한다. 김동환(22회, 재미 사업가)

◇ <포토갤러리>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사진을 보내주시면 게재 해드립니다. 보낼 곳 = yongmanews@gmail.com

김준기 동문(24회), 104세 할머니 대장암 수술에 성공 세계 최고령 암환자 수술사례로 기록

세밀인 지난 12월 25일 1909년생으로 104세인 문귀춘 할머니(제주시)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언론들은



김준기 동문이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문귀춘 할머니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100세가 넘는 암 환자의 수술 성공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여서 병원 측이 세계 최고령 암 환자 수술 사례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김준기 동문(24회, 가톨릭의대 대장항문외과 교수)이다.

6시간에 걸친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낸 그는 "나이가 관계없이 환자가 견딜 수 있으면 수술할 수 있다. 할머니의 신체 상태가 좋고 정신이 또렷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70세가 넘으면 수술 시에 고위험군으로 봤는데 요즘엔 70, 80대가 넘어도 건강한 분이 많다"며 "100세가 넘는 고령자 수술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젠 100세 수술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동문은 70년 가톨릭의대에 입학, 외과전문의과정을 거쳤고 군 복무를 마친 뒤에는 지금까지 가톨릭의대에서 교수로 28년째 재직해오고 있다.

이대호 동문(55회), 모교 야구부에 피칭 머신 등 선물 임경완(48회), 한현희(66회), 김준태(66회) 동문도 선물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팀이 이대호 동문(55회)이 지난 12월 28일 모교인 경남고에 피칭 머신과 운동화, 스파이크 등 야구 용품을 선물했다. 금액으로는 약 3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앞서 SK 와이번스로 이적한 임경완 동문(48회)이 지난해 12월 22일 모교 야구부선수들에게 1천만원 상당 방한용 언더웨어를 기증했다.

또 한현희 동문(66회, 넥센 히어로즈)과 김준태 동문(66회, 롯데 자이언츠)도 1천2백만원어치 배트를 후배 야구선수들에게 전달했다.

“한번 생물반이면 영원한 생물반”

생물반OB들, ‘생우회’ 만들어 수십년째 만남 계속 26회부터 55회까지 90여명... ‘끈끈한 인연’ 과시

가을이 무르익어 가던 지난해 11월 5일 저녁나절. 경남 밀양 표충사 아래 어느 민박집에 늙지도 젊지도 않은 중년의 남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부산과 창원, 포항, 대전 등지에서 직접 차를 몰고 온 사람도 있었고 멀리 서울에서 KTX를 타고 밀양역까지 와서 택시를 타고 달려 온 사람도 있었다. 모두 14명이었다.

민박집은 금방 시끄러워졌다. “어, 너 왔구나” “형, 오래만 이네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반갑게 악수를 나누거나 얼싸 안기도 했다. 이들은 경남고 생물반OB들의 모임인 ‘생우회’ 회원들이었다.

이날 모임의 참가자들 중에서 최고참은 서울에서 달려온 김광우 동문(29회)이었고 막내는 부산서 온 윤원욱 동문(39회). 이날 모임은 ‘생우회’가 매년 한번씩 1박2일 일정으로 갖는 ‘전국모임’이었다. 당초 20명 정도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들이 급한 일이 생겨 불참하는 바람에 참석자 수가 예년에 비해 적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밤을 새다시피 하며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에는 표충사를 둘러본 뒤 내년을 기약하며 푹푹이 헤어졌다.

매달 서울 부산에서 월례회, 일년에 한번 ‘전국모임’
생우회는 14년 전인 1997년 공식발족했다. 그러나 그 훨씬 전부터 생물반 출신의 OB들은 서울 부산 등지에서 가끔 한번씩 연락을 해 얼굴을 보는 식으로 모임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십년이 넘도록 생물반 출신이란 이유 하나로 선후배가 계속 끈끈하게 인연을 키워오고 있는 것이다. 마치 해병대처럼 ‘한번 생물반이면 영원한 생물반’인 셈이다.

현재 생우회의 회원은 26회에서 55회까지의 동문 90여명. 서울 경기지역에 40명, 부산 지역에 30명, 나머지 창원, 김천, 광양, 밀양, 대구, 포항, 제주 등지의 20여명 등이다. 이들 중 모임 때마다 얼굴을 보이는 적극적인 참가자는 45명 정도. 이들은 매달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월례회를 갖는 한편 매년 한번씩 전국모임을 갖고 서로 경조사를 챙기는 등 우애를 다져나가고 있다.

모교 재학 중 이런 저런 특별활동반이 한둘이 아니었는데도 유독 생물반 출신들이 이처럼 오랜 시간 친교를 갖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이에 대해 생우회 발족 이래 14년간 계속 회장을 맡고 있는 박태종 동문(33회)은 “무엇이 우리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강한 유대감으로 묶고 있는지를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며 “아마도 경남고 생물반은 초기 주상우 선생님 때부터 쌓아온 빛나는 전통이 있었던 데다가 과학관에 있었던 생물반 실험실이란 공간을 중심으로 3년 내내 선후배가 함께 공부하며 덩굴었던 잊지 못할 추억 때문이 아닐까 한다”며 웃었다.

“당시 면접과 인성테스트 거쳐 생물반원 선발했다”
박 동문은 “모교 재학 시절 생물반원들은 교내의 어느 특별활동 서클보다 엘리트의식이 강했다”고 했다. 아무나 원한다고 쉽게 생물반원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당시 경남고 입학 때의 연합고사 성적이 100등 이내에 들었던 학생들만 가입대상이 됐다. 그들 중에서 우선 서류심사를 통해 20명 정도를 먼저 뽑은 뒤 생물교실과 실험실 청소 등 허드레 일을 1주일 정도 시켜서 ‘사람 됨됨이를 본’ 다음에 2학년생들이 입대일 면접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3학년 선배들의 최종승인을 거쳐 매년 한 학년에 8명만 뽑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뽑힌 신입 반원들은 선배들로부터 “너, 내일부터 생물반에 나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합격통보’였다. 박 동문은 “나 역시 그런 과

정을 거쳐 생물반에 들어갔다. 이런 선발과정은 40회 기수까지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가다가 그 후로 점차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당시 생물반원이 하는 일은 생물 수업이 시작되기 전 과학관의 생물반 교실로 달려가 그날 수업할 내용에 따라 실험기자재를 준비해둔다든가 교실을 말끔하게 청소하는 것 등이 고작이었다. 한마디로 생물교사의 보조역할이었다. 그러나 대단한 특권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생물반교실의 실험실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한 학년에 8명씩 총 20여명 남짓한 생물반 반원들만 이 방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동아리 방’이었다. 이곳에서 생물반원들은 방과 후 끼리끼리 모여 개구리해부나 식물 잎 단면도 관찰 등 실험을 하거나 함께 공부를 했다. 방학 때는 지도교사와 함께 김해 들판이나 봉영, 비진도 등지로 식물이나 곤충채집여행을 가는 것도 대단한 특권으로 여겨졌다는 박 동문의 회고다.

“공부 잘하는 생물반원들”... 엘리트의식 강해
당시 생물반 학생들은 <Virus>라는 회보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극성이었다. 첩필로 필경해 등사판으로 인쇄한 20~30페이지짜리였는데 거기에 생물반원들의 실험기록, 독후감, 채집여행기 등을 실었다. 이 회보는 50호까지 발행한 뒤 중단되고 말았다.

또 27회 기수 때 쯤부터 경남고, 부산고, 부산여고, 경남여고 등 부산 시내 4개 명문남녀고교의 생물반 학생들끼리 ‘BSBA’라는 연합모임을 만들어 서로 학교를 방문하는 등 교류하기도 했다. 박 동문은 “이 연합회 덕분에 부산여고 경남여고에 당당하게 드나들 수 있었다”며 웃었다. 이 연합모임은 33회 기수가 재학했을 때까지 5년 이상 이어졌으나 그 후 생물반 지도교사가 바뀌면서 학교 측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며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점차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교교평준화 조치 이후인데도 당시 생물반 반원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 면학 분위기를 이어갔기 때문이었다. 33회의 경우 7명이 생물반원이었는데 서울대 3명, 연세대 1명, 성균관대 1명, 부산의대 2명등 전원이 재수를 하지 않고 그 해에 지원한 대학에 모두 합격했다. 한마디로 생물반은 반원들의 엘리트의식, 선후배간의 끈끈한 우애, 오래된 전통 등이 재학 시절은 물론 졸업 후 사회에 나와서까지도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게 하는 것 같아 보인다.

반가, 회기까지 만든 ‘순수 열정’의 생우회... 홈페이지도 개설
생우회는 별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동문 친목단체로서는 보기 드물게 회기(會旗)가 있다. 각종 모임 때나 회원 경조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경 만들었다. 벤틀지도 만들어 회원들에게 나눠주었다. 호랑이밥툰나무 줄기를 얹게 잘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보게 되는 단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1979년 33회 생물반원들이 졸업할 때 만들었다고 한다.

생우회는 또 특이하게도 ‘생물반 반가(班歌)’라는 노래도



밀양 표충사에서 있었던 '2011년 생우회 전국모임' 사진.



생우회의 사랑방인 홈 페이지.

갖고 있다.

<항도를 붙잡고 나는 용마의 터전/배우며 관찰하는 우정의 학도들/슬기롭고 더 힘차게 날아 올라가/망망대해 꿈을 펴는 경고 생물반>

이 노래는 34회 김지운 동문이 작사 작곡했다. 생우회 발족 초기에는 모임 때마다 이 생물반 반가들 소리 높여 합창하곤 했으나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다고 했다.



생우회의 회기. 회원들의 경조사에 쓰인다.

생우회는 오래 전부터 인터넷에 홈페이지 (<http://biofriend.kr>)를 개설해 이를 통해 회원들끼리 경조사를 알리거나 서로 안부를 묻고 행사사진이나 개인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이 홈페이지에는 현재 회원들이 올린 글이 2천 건이 넘고 하루 방문자가 평균 20~30명일 정도로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졸업한 지 긴 세월이 흘렀어도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생우회를 보면 우리의 모교가 과연 명문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명문고가 아니어서는 어찌 이런 모임이 가능할 것인가. 다만 아쉬운 점은 모교에서 생물반이 50회 이후부터 점차 활동이 미약해지면서 생우회에 더 이상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선배들이 이룩해놓은 좋은 전통을 후배들이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우회 회장 박 동문은 “50회 이후로는 생물반 출신들이라도 서로 어디에 있는지 소식조차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황유명 편집위원(29회)>

방송기자에서 목사로 변신한 조정민 동문(22회)

트위터로 복음 전달... 팔로워 6만명 가진 '스타목사'

살아가다가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 때 TV방송 앵커로 잘나가던 사람이 목사로 변신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직업을 바꾼 정도가 아니다. 인생의 진로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조정민 동문(22회)의 이야기다. MBC보도국 워싱턴 특파원, 사회부장, MBC TV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며 한 때 잘나가던 그는 50줄을 바라보던 나이에 인생의 진로를 확 바꾸는 결단을 내린다. 2003년 돌연 회사에 사표를 내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미국 보스턴의 고든 콘웰 신학대로 떠난 것이다. 신학공부를 하면서 마주쳐야 했던 이런저런 시련들을 이겨내고 귀국한 그는 마침내 목사가 됐다. '그저 그런 목사'가 아니라 서울의 유명 대형교회 중 하나인 은누리교회의 부목사인 데다가 6만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트위터 스타 목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변신도 놀랍지만 변신 이후 그의 성공은 더 놀랍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호기심에 들어갔다.

연봉 1억 5천만 원에 고급 승용차와 비서, 마법 같은 법인카드를 포기하고 당시로서는 앞날이 불투명한 목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했다.

"10여 년 전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골프연습장에 갔는데 쉬는 날인지 문이 잠겨 있었어요. 돌아갈까 하다가 근처에 아내가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는 은누리 교회가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쳐 호기심에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갔지요. 처음에는 기자 정신으로 이 사이비 집단을 일주일만 취재해서 '카메라 출동'에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새벽기도회에 자리를 잡고 설교와 찬양, 기도예 기를 기을인 것이 하나님과의 첫 영접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본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의 고백은 이어졌다.

"세상에서는 아무 것에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로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늘 답답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교회에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로움과 만족감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놀란 체험이었다.

경남고 때 통도사에서 출가하려다 뜻 접기도

그는 젊은 날 부산 통도사를 드나들던 불교도였다. 경남고 시절에는 통도사에 20일 가량 머물면서 출가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주지스님이 무슨 이유에 선지 그에게 재가(在家)불자가 되기를 권하는 바람에 그는

출가의 뜻을 접고 말았다고 한다.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당시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가, 죽음이란 무엇인지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에 자주 매달렸다고 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정치사상사를 전공했다. 대학시절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데모에 나서기도 했다. 졸업 후 MBC 기자로 입사, 사회부에서 10년, 정치부에서 10년을 보내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세상의 소식을 전하며 매일 폭탄주와 삶을 같이 했다. 서른다섯에 결혼을 했다. 이번에는 아내를 사람 만들겠다고 치열하게 부부 싸움을 했다. 마흔에는 아이들을 사람 만들겠다고 매를 들었다. 어느 날부턴가 그 암전하던 아내가 같이 맞고함을 질렀고,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혼내다 오하려 손목을 잡혔다. 모든 것을 바꾸고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오십이 다 되어서다. 그제서야 정작 바뀌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40년을 술독에 빠져 살던" 그가 술을 끊었다. 대신 그의 손에는 성경을 들려 있었다.

미국서 신학공부하다 심장수술 안면마비 등 시련

-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주위의 반대는 없었는지요?

"아내는 우리 사회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 당시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며 언론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평신도로서 좋은 신앙인의 길을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양빛을 본 사람이 촛불에 연연하지 않듯 나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자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배우는 어려운 성서신학 과정과 두 번에 걸친 심장수술과 안면마비 등 병치레를 모두 이겨내고 돌아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지금 그는 은누리교회의 부목사로 있으면서 기독교 선교 방송인 CGN TV의 대표로 있다.

조 목사는 트위터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 그의 트위터에 팔로워로 등록된 사람이 6만 여명. 팔로워닷컴(followkr.com)에 따르면 조 목사의 트위터는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리트윗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트위터의 글들을 정리해 <사람이 선물이다>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방송 앵커나 목사나 하는 일 다르지 않아"

그의 트위터 복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글이 가진 진정성과 뛰어난 설득력 때문이겠지만, 반기독교적 성향인 젊은이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거나 기독교



조정민 동문. 과거 방송앵커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굿뉴스'를 전하고 있다.

교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작용을 하는 듯하다. 그렇다고 어쩌다 유행이 된 정치나 세대에 대한 따끔한 비판이나 풍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자신만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의 지혜를 담은 따뜻한 트윗을 매일 아침 트위터러들에게 배달한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이제 백신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특효약입니다. 주위를 살피면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말랑말랑한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얼마 전 출판기념회를 독자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목회야말로 진정한 정치입니다. 정치는 목회와 같습니다. 진정한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삼류 목회나 삼류 정치는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치는 하나 되게 하는 것. 조직과 국민을, 비전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조 목사는 방송 앵커에서 목회자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굿뉴스(Good News)를 계속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창기 객원편집위원(시인)>



당신만을 위한 토탈 자산관리 서비스

KB국민은행 해운대 PB센터 센터장 박규배(37회)
"용마 신후배님, 임진년 한해 흑룡의 기운과 함께 하십시오."

KB 국민은행

저금리, 고물가, 장수의 시대!

지금 당신 곁에는 험한 파고를 함께 헤쳐나가 줄
듣직한 길잡이가 있습니까?

- 전담 프라이빗뱅커에 의한 1:1 맞춤형 자산관리
- 부동산,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해결방안 제시
- 고객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 철저한 비밀보호, 쾌적하고 기다림 없는 일처리, 넉넉한 무료 주차공간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6-1번지 더샵 아델리스상가 2층 (마린시티내 한화리조트 옆)
☎ 051)743-6380~5

첫 소설집 낸 치과의사 허택 동문(25회)

나이 들어 이룬 문학의 꿈... 문단 호평에 고무

허택 동문(25회)은 현직 치과의사면서 소설가다. 지난 2008년 <문학사상>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문단에 공식 등단한 그가 지난해 10월 첫 소설집 <리브 앤 다이>(문학사상 펴냄)를 펴냈다.

신인작가가 등단 2년 만에 소설집을 내는 것은 드문 일인데다가 현직 치과의사라는 점에서 그는 중앙문단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 치과의사가 나이들만큼 들어서 소설가가 됐다. 언제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었나.

"어려서 부터다. 굳이 말하자면 중학교 다닐 때부터 글쓰기가 좋았고 작가가 되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했고 나 역시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생각해 꿈을 접고 치과의사의 길을 걷게 됐던 것이다."

- 경남고 다닐 때 문예반에서 활동했나.

"안했다. 치대에 가기 위해 이과를 택해 입시공부만 했다. 문예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서울대 치대에 들어간 그는 졸업 후 서울대 치대에서 3년간의 조교생활과 군 복무를 거친 뒤 선친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에서 일하게 됐다. 부산 국제시장 안에 있는 '평화치과'인데 선친이 작고하면서 이 병원을 이어받았다. 40년이 넘도록 한 자리에서 2대째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학수업에 들어갔다고 했다.

- 갑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한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

"나이가 50을 넘으면서 어릴 때 품었던 문학에의 꿈이 살아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뭔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는 낮에는 치과의사로서 일하고 퇴근 후 밤이면 소설 습자에 매달렸고 2008년 <문학사상>에 보낸 단편 <리브 앤 다이>가 밀키 신인문학상 수상작으로 뽑히면서 소설가로 변신하는데 성공한다. 먼 길을 돌아 어릴 적의 꿈이었던 소설가가 된 것이다.

그의 첫 소설집 <리브 앤 다이>에는 <동짓날, 무지개빛 우산을 쓰고>, <칫솔>, <이질동질>, <아내의 오른편과 왼편>, <리브 앤 다이> 등 모두 8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다. 그동안 <문학사상>, <좋은 소설>, <학산문학>, <한국소설> 등의 문예지에 발표했던 작품들이다.

- 첫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이 대부분 죽음을 다루고 있다.

"아무래도 내 나이가 있으니 그런 모양이다. 주위에서 차츰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요즘 친구들과 만나면 화두가 대개 죽음이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자주 입에 올리게 되고..."

소설집에 실린 8편의 작품에는 전립선암에 걸린 중년, 동성애자, 간암 말기의 노인 등 죽음을 앞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온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잔잔한 재미를 곁들이고 여운을 던져준다. 신인답지 않은 내공이 엿보인다.

표제작인 단편 <리브 앤 다이>는 의사, 교수, 사장, 펜션



허택 동문의 첫 소설집 <리브 앤 다이>의 표지.



허택 동문. 낮에는 치과의사로, 밤에는 소설 집필로 바쁘게 지낸다.

주인 등 중년 인물들이 고교 은사의 기일을 기념해 모인 자리에서 포커를 친다는 얘기다. 고교동기들끼리 벌이는 포커판을 통해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는 중년들의 모습들을 그리

들은 사회에 나와서야 가깝게 지내게 됐다. 이윤택 동문이 초기에 소극장활동을 할 때 어느날 불속 찾아와 "너 돈 많은 치과의사 아이가. 내 연극 스폰서가 돼라"고 부탁했고 이에

허 동문이 선뜻 응하면서부터였다. 그가 소설가로 변신하는 데에도 이 동문이 이런저런 도움말을 많이 해주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이윤택 동문은 허 동문의 단편소설 <리브 앤 다이>를 단막극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렸다. 이 동문은 이 연극을 만들면서 소설 속에서 가스통이 터져 죽는 것으로 돼있는 '연출가'의 이야기를 속 빼버렸다. 허 동문은 이를 두고 "죽기는 싫은지 윤택이가 지가 죽는 건 속 빼고 연극을

만들었더라"며 웃었다.

'늦깎이 소설가' 허 동문은 요즘 상당히 고무돼 있다. 그의 첫 소설집 <리브 앤 다이>가 의외로 많이 팔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초판으로 1,500부를 인쇄했는데 이것이 다 팔려 2판 인쇄에 들어갔다. 신인작가, 그것도 지방에 있는 작가의 첫 소설집이 이렇게 초판이 매진된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거기다가 중앙문단의 평론가들의 호평도 뒤따르고 있다.

허 동문은 매일 아침 9시 30분이면 치과병원에 출근해 저녁 6시반까지 환자를 본다. 한 자리에서 2대에 걸쳐 수십년간 개업하고 있기에 병원은 항상 환자들로 붐빈다. 종일 의사로 일하다가 퇴근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자정 무렵이면 일어나 작품을 쓴다. 낮에는 의사로, 밤에는 작가로 지내는 생활이다. 의사노릇도, 작가 일도 고된 노동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는 돈이 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안되는 일이나 둘 다 하고 싶은 일하기에 하루하루가 재미있다"고 말한다.

그는 첫 소설집에 실린 '작가의 말'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십여년. 한 작품 한 작품 태어날 때마다 나를 조금씩 알아가는 듯하다. 편안해지고 필연의 팔자도 있구나 느끼게 된다... 신기할 뿐이다. 사춘기 때 공상이 실현될 수 있구나."라고 썼다. <김차웅(19회)>

가업 잇기 위해 문학의 꿈 접고 서울대 치대 진학 부산 국제시장에서 2대 짜 치과 개업 중 50 넘어 <문학사상>에서 신인상 수상, '늦깎이' 등단 단편소설 8편 묶어 첫 소설집 펴내... 초판 다 팔려 소설에서 이윤택 동문이 죽는 것으로 설정... 핀잔 받아

고 있다. 작중 인물들은 포커판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늘 자살을 꿈꾸는 회장을 화제로 삼으며 포커를 한다. 사장이 노페어 카드로 '홀'을 외치며 끝까지 죽지 않자 교수가 먹살을 잡고 툴는다. "왜 이렇게 광분해?" 그러자 전립선암에 걸렸다는 사장은 "나는 끝까지 살고 싶단 말이야!"라고 외친다. 그들의 대화와 몸짓에서 허무한 삶과 생존 의지에서 갈등하는 오늘날 중년의 자화상이 겹쳐진다.

재미난 것은 단편소설 <리브 앤 다이>에서 작중인물들이 고교동기인 '연극 연출가'의 죽음을 회고하는데 그 연출가는 용두산 근처에서 창고 같은 소극장을 운영하다가 끝내 LPG가스통이 터져 죽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소설은 그의 죽음이 사실임을 암시하고 있다. 문제는 'LPG가스통이 터져 죽은 그 연출가'가 허 동문의 동기인 연출가며 시인인 이윤택 동문임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는 점이다.

- '작가는 살인마'라는 말이 있다. 겹치면 작중인물들을 죽여 버리기 때문이다. <리브 앤 다이>에서 이윤택 동문을 죽였는데, 이 동문으로부터 항의는 받지 않았다.

"(웃으며) 윤택이가 '하필이면 와 나를 죽이노? 그것도 가스통으로'라며 핀잔을 주더라. 물론 한바탕 웃고 넘어갔다."

허 동문은 경남고 재학 중에는 동기인 이윤택과는 별교분이 없었다고 한다. 이과 문과로 서로 공부가 달랐고 허 동문이 당시 문예반인 토요회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트 경력 20년 넘는 이용만 동문(19회)

“늘그막에 요트 타는 재미 쏠쏠 합니다”

이용만 동문(19회)은 주위사람들로부터 ‘요트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늘그막에 요팅(yachting, 요트 타기)에 푹 빠져있기에 듣는 소리다. 사람들이 주말이면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산에 등산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한 달에 서너번 정도 자신의 요트를 몰고 바다로 나간다.

요팅은 이 동문의 오래된 취미다. 그가 처음 요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외환은행 부산지점에서 근무할 때 한 고객의 권유로 어떤 요트클럽에 가입하면서 부터였다. 당시 난생 처음으로 요트를 타고보는 “와, 이렇게 재미난 것도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 때가 1988년도였으니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됐다. 경남고 재학 때부터 오로지 등산만이 유일한 취미였던 그에게 이 때부터 ‘또 한가지 평생 미칠만한 일’이 생긴 것이었다. 특히 IMF 때인 1998년 명예퇴직한 뒤부터 그는 요팅에 더욱 몰두하게 됐다.

이 동문이 타는 요트는 ‘씨 와이프(Sea Wife)’라는 선명(船名)을 가진, 선체 길이 33피트에 마스트 길이가 13m인 크루즈용 요트(항해용 요트)다. 최대 승선인원 8명인 이 요트는 원래 조만석 동문(26회, 한국외양범주협회 부회장)의 소유였는데 약 8년 전쯤 이 동문이 동기인 이용홍 동문(19회, 본부동창회 고문)과 함께 인수, 현재 공동소유하고 있다.

‘씨 와이프’호는 ‘우리나라에서 제1호로 공식 등록된 요트’. 그래서 세일에 <RK-1>이라는 고유등록번호가 자랑스레 새겨져 있다.

“‘씨 와이프’호가 좀 오래된 요트이긴 해도 미끄럽게 잘 나간다”고 이 동문은 요트 자랑부터 했다.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수리했고 각종 최신 장비들로 보완하는 등 관리를 잘 해왔기에 장거리 항해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동문과 함께 ‘씨 와이프’호를 타는 ‘크루(Crew, 선원들)’은 그를 ‘스키퍼(Skipper)’라고 부른다. 스키퍼란 선장을 뜻하는 말. 그는 몇 년 전 새로 생긴 법에 따라 해양경찰이 시행하는 요트조정 면허시험을 거쳐 선장면허증을 땀다. 선장면허증을 따기 전에도 그는 요트를 몰았고 “선장으로서 실력이 짱짱하다”는 평을 들었다.

이 동문은 그동안 각종 요트경기에 빠지지 않고 참가해왔다. ‘씨 와이프’를 몰고 한국과 일본 요트맨들의 축제인 ‘아리랑 레이스’에 7차례나 연속 참가했다. 부산 앞바다를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까지 항해하며 벌이는 이 경기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대회. 이 동문은 지난 1989년 이후 2003년까지 14년간 매년 빠지지 않고 참가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출발해 후쿠오카항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날씨와 해류에 따라 달라지나 대개 30시간 정도. 대한해협을 건너면서 황천(荒天)을 만나 크게 고생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여름철이면 “바람 쏘이는 기분으로” ‘씨 와이프’를 몰고 대마도에 갔다 오기도 한다.

국내 요트대회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가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포항-독도간 항해경기인 ‘독도 레이스’에 3번, 통영시가 주최하는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에 5번, 완도에서 열리는 ‘장보고배 요트대회’에 2번을 참가했다.

- 동문들 사이에 잘 알려진 ‘산꾼’인데 요트 취미까지 가졌으니 너무 욕심이 많지 않은가.

“웃으며) 안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

이 동문은 경남고 때 경고산악반의 멤버로 활동했고 졸업 후에는 구덕산우회의 창립멤버였을 만큼 등산을 좋아했다. 대학(성균관대 상대 무역학과 졸업) 때는 암벽등산에 빠져 인수봉에만도 50번 정도 올랐다. 1993년 히말라야 초오유(8201m)에 정찰등반을 갔다 온 뒤 2003년에는 히말라야 아



해운대 앞바다에서 ‘씨 와이프’호를 타고 있는 이용만 동문. 요트 조종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요트맨이다.

일랜드 피크(6101m)에 올랐다. 지난 1999년 이후 히말라야 안나프루나 트레킹을 3번이나 갔다오기도 했다. 그동안 등산과 요팅을 함께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는 매달 한번씩 등기들과 산행도 하고 있다.

- 산이 좋은가 바다가 좋은가.

한 바로 1미터 앞 뱃전에서 잘랑거리는 물결을 같은 높이에서 바라보며 항해하는 것도 대단히 낭만적이다.”

- 요트가 돈이 많이 드는 귀족놀이라는 지적도 있다. ‘백수’이면서도 요트 타고 산에도 다니고... ‘팔자 늘어졌다’는 소리를 들겠다.

“웃으면서) 내가 부자가 아니라 건 우리 동기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나는 백수에다가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지공거사’까지 겸하고 있다. 그래도 요트는 탈 수 있다. 알고 보면 요트가 그렇게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다.”

이 동문은 “땀 데 쓸 용돈을 아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바로 요트”라고 말했다. 요트 값도 최근 일본 중고 요트가 많이 수입돼 들어오는 바람에 크게 싸졌다고 했다. 30피트 정도 되는 요트는 어지간한 차 한 대 값이면 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팅은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 크루가 있어야 하는데 마음에 맞는 크루팀을 구성하는 일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와 함께 ‘씨 와이프’호를 타는 크루들은 그와 오래동안 등산을 함께 해왔던 후배들이어서 손발이 척척 맞다고 했다.

- 늘그막에 남들이 잘 하기 어려운 취미를 즐기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체력이 되는 한 요트를 계속 탈 생각이다.”

그는 임진 새해에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것은 ‘씨 와이프’호를 일단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몰고 간 뒤 거기서 출발, 동해와 남해를 거쳐 서해의 연평도까지 일주 항해를 하는 일이다. 그는 “이것은 등산으로 치면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생각만 해도 흥분된다는 듯 상기된 표정이었다.

<김차웅(19회)>

은행원 시절 요트 처음 타보고 “와, 이렇게 재미난 게...” 반해 등산과 요팅 둘 다 재미... 도전과 극복의 쾌감이 공통점 “새해엔 동해 ~ 남해 ~ 서해 일주항해 계획 실행할 것” 기염

“나에게는 둘 다 욕심이 나는 대상이다. 사실 알고 보면 산이나 바다나 나에게 구분해서 말할 것이 아니다. 똑 같다. 사실 바위에 오를 때에는 겁이 나지만 스틸을 밟으며 해내고 나면 뿌듯함을 느낀다. 요트도 마찬가지다. 출항할 때마다 사실 겁이 난다. 바다는 대개 거칠고 날씨며 파도가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트를 몰고 나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느끼는 그 희열은 말도 못할 정도다. 산이든 바다가든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똑 같다고 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요팅의 어떤 점이 좋은가.

“처음 요트를 타는 사람들은 대개 갑갑해 한다. 바람의 힘으로만 달리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데다가 비좁은 선체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요트의 스피드에 익숙해지면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짐을 느끼게 된다. 요트의 그 적당한 스피드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스피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바다에서 일출과 일몰 광경을 보는 맛은 유별나다. 그보다 더 낭만적인 것이 또 있을까 싶다. 또

다시 보는 부산 ⑥ / 부산의 음식

못생긴 생선이 사지를 뒤틀며 내는 야릇한 냄새에...

글/사진 김형운 (18회, 김형운편집회사 대표)

부산 대연동 유엔공원 정문 가까운 곳에 쌍둥이돼지국밥이라는 식당이 있다. 주말 점심 무렵이면 문 앞에 긴 줄이 생기는 집이다. 돼지국밥집이 많은 부산에 이처럼 문전에 장사진이 생기는 곳은 이 식당이 유일하다.

나도 이 집의 긴 줄에 한번 끼여 보았다. 줄을 선 사람들은 나라 안 곳곳에서 이 항구 도시로 짝 지어 늘어난 이삼십대 청년남녀들이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대부분 돼지국밥과 순대국밥의 차이를 정확히 모를 뿐만 아니라 돼지국밥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2, 30분을 기다린 끝에 들어가 제육까지 곁들여 국밥을 주문하지만, 태반이 음식을 남겨놓고 일어섰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부산의 맛'을 찾다가 이 집 이름을 발견했다. 말하자면 부산에 여행 왔던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은 음식이 돼지국밥이었고, 쌍둥이집이 그 중 유명했던 것이다.

부산의 맛, 그러니까 이 남쪽 바닷가 고장을 대표하는 음식들은 무엇일까? 돼지국밥도 그 하나이지만 그보다는 아무래도 생선요리들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다.

'전국구 음식' 이 된 생선회 보다는 곰장어구이가...

생선요리, 그 중에도 으뜸은 생선회다. 부산 사람이 외식을 하면 가장 손쉽게 찾는 것이 생선회이고, 여행객들도 부산에 오면 으레 회 한 접시쯤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부산 음식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이제 이것이 너무 흔한 전국구 음식이 되어버렸다. 동해, 서해, 남해를 가릴 것 없이 바다를 접한 지역은 온통 횡집으로 도배가 된 세상이다. 지역 따라 제철 생선이 있다지만 양식업의 발달로 그 차이가 크지도 않다. 탁상에 흰 종이를 깔고 차려 내놓는 상차림의 풍경도 또한 부산과 목포, 부산과 속초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나는 곰장어구이가 부산의 생선요리로 오히려 더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가을 서울 손님 몇 명을 접대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을 자갈치의 곰장어 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이 못생긴 생선이 사지를 뒤틀며 발산하는 야릇한 냄새에 모두 침을 삼켰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다.

타향 사람들에게 부산의 생선요리로 복국이 또한 잘 알려져 있다. 복국은 그 요리법의 까다로움 때문에 음식점에서만 먹게 되는데, 금수복국이 서울까지 진출해 있다. 나는 해운대나 온천장의 금수복국에도 가지만 주로 애용하는 것은 영주동의 할매복국과 해운대의 제일복국이다. 이유는 음식값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특히 영주동 할매복국은 반찬으로 나오는 파래무침이 내 입맛에 맞아서 더 자주 찾는다.

간장으로만 무치는 할매복집의 파래... 입맛에 맞아

부산이 아닌 곳에서는 파래무침에 식초를 쓰는 음식점이 많다. 서울에서는 열이면 열이 다 식초를 쓴다. 나는 이것이 영 못마땅하다. 식초는 파래의 향기를 없애버린다. 부산에서도 식초를 파래에 쓰는 집이 늘어나고 있으나 할매복집은 간장으로만 무친다. 좀 덜 짜기만 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맛 그대로인데, 그 점만은 아쉽다.

복어국만이 아니라 동태탕도 내가 타향 사람들에게 권하는 부산 음식의 하나이다. 복국이 재첩국과 함께 해장국으로서 효능이 큰데, 동태탕 또한 그 점에서 다른 둘에 떨어지지 않는다. 부산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도 잘 견디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생선 음식으로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같은 찌개류들도 있다. 다 좋지만 그 중에도 나는 멸치찌개를 권한다. 어린 시절 어느 화창한 봄날, 잘 말린 시래기를 바다에 깔고 끓인 멸치찌개의 맛을 잊지 못해 나는 일부러 기장을 찾는다. 기장은 멸치회와 더불어 멸치찌개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곳이다.

'전국구' 였던 시래기국이 부산서 명맥 이어가

각종 생선구이도 부산 음식에서 빠뜨릴 수 없다. 생선찌개처럼 생선구이집 또한 부산의 요소요소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밥쯤을 덜 팔고 싶다면 자갈치로 가는 것이 좋다. 특히 자갈치시장 중심부에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생선구이집들은 이곳이 생선 종류가 풍부한 곳임을 새삼 느낄 수 있게 한다.

생선요리 말고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 항목에서는 시래기국을 먼저 꼽고 싶다. 내가 서울 손님들을 곰장어집으로 데려갔던 날, 나는 그들에게 곰장어구이는 소주 안주로만 먹게 하고 밥은 다른 곳에서 먹자고 했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간 곳이 시래기국밥 집이었다.

시래기국은 원래 전국구 음식이었겠지만 시래기를 만들고 간수하는 일이 번거로워 가정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주로 시중의 음식점에서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는 시래기국밥을 파는 집이 많다. 된장을 심심하게 쑀 집, 된장 맛이 더 짙은 집, 주인들의 취향과 솜씨에 따라 맛이 다르다. 내가 자주 가는 집은 중앙동 어귀에 있는 새마을식당이라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된장 외에 고등어를 뼈째 갈아 넣어서 국물에 구수한 맛을 더한다.

한편, 부산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으로 동래파전이 있다. 우리가 전국 술집에서 흔히 보는 해물과



곰장어구이로 이름난 부산시청 옆의 성일집의 상차림. 보통 화덕에서 바로 구워먹게 하는 집이 많은데 이 집에서는 따로 구워서 내놓는다.



자갈치시장의 생선구이집 풍경. 먹음직한 생선이 많다. 두 사람 이상이 가야 여러 종류의 생선을 골라먹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대연동 유엔공원 정문 가까이에 있는 쌍둥이돼지국밥집 앞. 각지에서 온 청년남녀들의 입맛이 변

한 탓인지 이를 찾는 이들이 날로 줄고 있다. 나도 동래구 명륜동의 원조 집에 거의 스무 해 전에 처음 갔고, 그 뒤로 10년 만에 다시 갔지만, 더는 가보지 못했다. 새해 봄에는 친구들과 다시 한번 찾고 싶다. 가실 분들 연락 주시기를!

용마 횡집

전망이 좋은 횡집

동문 여러분을 친절하고 저렴하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오 용 환 (31회)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48 바다산책빌딩 2층
미월드 놀이동산 앞 수변공원에 위치
예약문의 051)759-7337, 010-3574-5030

/秃筆雜記/

부모는 '뽕' 이 아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들의 빚 때문에 살던 아파트를 날리고 갈 곳이 없어진 어느 사립대 총장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이것은 드러난 경우일 뿐이다. 늘그막에 자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부모가 주위에 의외로 많다. 자식이 진 빚 때문에 단칸 전세방을 전전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연금마저 차압당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녀들을 한 명씩 결혼시킬 때마다 부모는 변두리에서 더 먼 변두리로 이사를 간다는 말도 있다.

때 빠지게 일해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켜놔도 칠없는 자식들은 이런저런 일로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 이럴 경우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으니 문제인 것이다. 그런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낳아 키우는 기쁨은 잠시이고 그 대가는 너무 길고 혹독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자녀가 있는 1만 여 가구를 대상으로 '자식양육 책임기간 인식조사'라는 걸 해보니 △'대학졸업할 때까지'가 46.3%, △'결혼할 때까지'가 27%, △'취업할 때까지'가 11.8%로 나왔

다고 한다. 선진국의 평균적인 부모들처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라고 답한 것은 8.6%에 불과했다. 한국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특이한 집착과 희생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전후세대인 50대는 "우리 사회에서 효를 행한 마지막 세대요, 효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있다. 지금의 50대는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직장에서 일찍 밀려나 대부분 '수입이 없는 30년'을 보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제 부모들도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언제 어떻게, 또 아름답고 지혜롭게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독립시켜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되 희생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를 자식들에게 솔직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악성보험이 자식'이라는 영국속담이 있다. 까딱 잘못하면 노후가 절벽 위에 선 것처럼 비참해진다. 한국의 부모들이 이제 스스로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할 때다.

<바우>

九德골 카메라 산책



학생대표 선거 열기... '화장실 손잡이 수리' 등 공약

지난해 말 모교에서는 2012년도 학생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었다. 이번 선거에는 학생회장 후보로 3명이, 부회장 후보로 5명이 출마했다. 그 전 해 학생회장 후보만 달랑 2명이 나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후보가 난립,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후보들이 벽보를 통해 내건 공약 중에는 '화장실 손잡이 수리와 방향제 비치', '저녁시간 운동장 불켜기' 같은 것에서부터 '급식개선 학생 모니터링단 구축' 등 제법 그럴싸한 것도 보였다. 어떤 후보는 자신의 키가 축구선수 메시와 똑같이 169cm라는 걸 강조하기도 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교문에 나와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마침내 12월 22일 실시된 투표에서 학생회장에는 황유광 군이, 3학년 부회장은 권현재, 2학년 부회장은 지우준 군이 각각 당선됐다. <사진은 교문 옆 게시판에 나붙은 선거벽보>

캐나다에 연구교수로 가 있을 때 일이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옆방의 서양교수가 한국사람들의 침 뱉는 버릇을 타박하기에, 서양 사람들 밥 먹을 때 코 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응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아무렇게나 침을 뱉는 습관은 예의지방(禮義之邦)을 자처하는 문화민족으로서 고쳐야 마땅한 것이라고 늘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고금을 통해 침은 추악한 자들에 대한 경멸의 표시이자 상징으로 그 기능을 다해 왔다. 역사에 등장하는 열사(烈士)나 의사(義士)들은 조국이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하면 동족의 안녕과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하다가 그 투쟁이 무위(無爲)로 끝나 적에게 사로잡히는 몸이 되었을 때 적의 면상에 '탁'하고 침 세례를 가함으로써 통쾌한 죽음을 맞이하곤 했다. 진시황(秦始皇)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그 면전에서 침을 뱉은 한(韓)나라의 자객은 조국을 위해 침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이름 없는 열녀들은 몸을 더럽히려는 이국의 악마들을 향해 정절의 침을 뱉었고 일제 때 유관순누나는 도리우치를 눌러 쓴 왜놈 형사 나카무라를 향해 애국의 침을 뱉었으며, 독재정권하에서 시인 김수영은 더러운 세상을 향해

침 뱉지 말고 삼켜라

김성언의 人文산책

"시인이여, 침을 뱉어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노래 불렀다.

침이 세상을 일깨우는 매개물로 쓰인 사례도 있다. 가령 <신당서(新唐書)>에 수록된 누사덕(婁師德)이라는 사람의 전기에는 '타면자건(唾面自乾)'이란 말이 나온다. 성깔 있는 동생을 타이르면서 베푼 훈계인데, 남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을 경우 바로 닦으면 오히려 그 사람의 성질을 돌우게 되니 얼굴에 묻은 침이 저절로 마르기를 기다리라는 말이다. 인욕(忍辱)을 강조한 성어로서, 이런 일은 참으로 부처님이나 예수님에게나 어울리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또 침이 구슬을 이룬다는 뜻의 해타성주(咳唾成珠)라는 성어는 아름다운 시문(詩文)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여기 나오는 '해타'는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중 '사선(四仙)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나니'라는 구절에도 인용되어 우리에게 낯익다.

그러나 오늘날 산길을 걸거나 도심지를 활보하면서 좌우의 시선에 아랑곳없이 마구 침을 뱉는 행위는 정절이나 애국 혹은 아름다운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이들을 보며 나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이 준 영약(靈藥)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손을 깎지 끼고 양 볼을 비비면 입안 어금니 쪽에 맑은 침이 고인다. 이를 한시에서는 아침이슬 즉 향해(沆瀣)에 비유한다. 매월당 김시습은 은둔의 시 '능허사(凌虛詞)'에서 "아침에는 향해를 먹고 저녁에는 유하(流霞)를 마시네.(朝餐沆瀣暮流霞)"라고 읊었는데 향해는 곧 침이며 유하는 술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선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터이니 그 말을 꼭 믿고 실행에 옮기라(須信凌虛有作家)는 충고도 매월당은 빼놓지 않았다.

저녁마다 술을 마셔서 신선이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야 정말 충실히 실행에 옮기겠지만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다. 반면 아침마다 침을 삼키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도 들지 않으니 한번 실천해 볼 직하다. <김성언(24회, 동아대 국문과 교수, 한국고전문학)>



2011년도 저희 사하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하동창회 회장 류명석 외 회원일동

협찬해 주신 분

- 조규향(14) 동아대학교 총장 / 손부흥(15) 손부흥정형외과 원장 / 전영삼(29) 조은회원 대표 / 류명석(31) (주)경민 대표 / 이병태(31) 외환은행 남서면지점 지점장 / 류장근(33) 동주대학교 교수 / 정윤성(35) 협성운수(주) 대표 / 최승호(36) 법무법인 정택 국장 / 허부남(37) (주)금호스틸 대표 / 김지웅(37) 큰다솜의원 원장 / 김종진(38) 장이쁜의원 원장 / 문귀상(38) (주)성원 대표 / 정민철(38) 동주대학교 교무과장 / 조용철(38) (주)신화프리스건설 대표 / 김윤홍(39) SK부동산 대표 / 김원홍(39) 장팔팔내과 이사 / 김종길(40) 청송학원 원장 / 백창봉(41) 강촌훼미리타운 대표 / 임정훈(44) 새마당예식장 부사장 / 장문기(47) 윈스포즈 대표

꽃 이야기 / 동백

사무치는 그리움을 적막감으로 피워내는 꽃

시골집 마당엔 제법 큰 동백나무가 있었다. 전 집주인이 어릴 때 심었다는 녀석인데 수령이 제법 된 듯 키가 담을 훌쩍 넘었고 우람한 등치와 가지에는 해풍에 오래 시달려 서인지 회곳곳 버짐 같은 것이 나 있다. 이 나무에서 해마다 동백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담 넘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붉디붉은 동백꽃이 피면 꽤 볼만 했다. 시골처녀가 돌담 안에서 불그레 물든 얼굴을 수줍게 내미는 모습 같기도 하다.

동백꽃(재래종)은 꽃 모양이 번잡하지 않고 단출, 단아하게 생겼다. 고전미(古典美)가 있다. 동백꽃의 특징은 붉다 못해 선연한 피를 토한 것 같은 꽃 색깔에 있다. 이 꽃 색깔 하나만으로도 동백꽃은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또한 삼동(三冬)에 꽃을 피워내는 그 고고함과 기개도 높이 살만 하다. 선혈 같은 붉은 색깔에서 동백꽃의 불같이 뜨거운 사랑과 그리움을 보고, 엄동의 추위 속에서 개화하는 데에서 그 그리움과 사랑이 얼마나 사무치고 뜨거운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동백꽃의 진짜 미덕은 그 말 못할 사연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요란하지 않게, 소리 없이 드러낸다는 데 있다. 任慶彬은 '나무백과'에서 <개나리 살구나무 벚나무 앵두나무 진달래 등은 그 꽃에서 고요함을 찾기 어려우나 동백나무꽃에서는 소리없는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 화려하면 서도 고요하기란 어려운 것인데 동백나무꽃은 그것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적막한 느낌, 그것이 동백꽃의 매력이다>라고 했다.

동백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 사철 푸른 잎을 갖고 있는 점

을 든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동백나무 잎은 멀리서 바라볼만 하다. 화암은 그의 <화품평론>에서 동백을 <평하되, 도골선풍(道骨仙風)이 속세를 벗어나 사람무리를 떠나는 기상이다. 총론하되, 날개가 돌친 새는 깃이 없는 법이니 조물주가 본디 어떤 한 틀건에만 편사(偏私)하지 아니하거늘 치자와 동백은 청수한 꽃을 지니고 또 빛나는 운택한 사시(四時)의 잎을 겸하였으니 화림(花林) 중에 뛰어나고 복을 갖춘 것이라 하겠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나는 뭐니뭐니해도 동백꽃의 진면목은 꽃이 지는 모습에 있다고 본다. 동백꽃은 질 때 서슴없이 꽃 전체가 통째로 툭 떨어진다. 기다리다 지쳐서 인가, 기다려도 안 오니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꼬인 마음인가. 두 말없이 단호하게 떨어지고 만다. 동백꽃의 서늘한 절개를 말해주는 듯하다.

세상의 모든 꽃들은 피었을 때는 화려하고 보기에 좋으나 질 때는 시들어 추한 모습이다. 그러나 동백은 꽃잎이 심상한 상태에서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 뒤에야 꽃잎이 시든다. 동백 숲에 가보면 숲 그늘 여기저기에 푹푹 떨어져 있는 붉은 동백꽃들이 보기에 섬뜩한 느낌을 준다. 일본사람들은 이를 두고 "사무라이의 칼날에 떨어진 무사의 머리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동백의 이런 낙화모습에서 때가 되면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미학'을 볼 수 있다. 숲자리에서 숲잔을 높이 들고 '구구팔팔-이삼사'를 주



동백꽃은 붉다 못해 선연한 피를 토한 것 같은 화려한 색깔을 가졌으나 요란하지 않고 적막한 느낌을 준다.



화가 엄윤영이 그린 거제 지심도의 동백 숲. 무더기로 떨어진 동백꽃이 피를 뿌려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문처럼 외치는 사람이라면 동백꽃에서 뭔가 배울 점이 없지도 않을 것이다. <김치웅(19회)>

시산책

상 위의 손가락을 보는 나이

배영옥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임을 강조할 때
그 집 손가락 숫자까지 다 안다고들 한다
그 말이 단순히 손가락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마흔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 생애는
두레밥상 위에 손가락을 놓으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손가락들
어제 옆집 아버지 친구는
서낭당 언덕에서 들맹이에 걸려 돌아가시고
건넌집 아이엄마는 오늘 딸 쌍둥이를 낳았다

나도 이제 상 위의 손가락에 숨은 배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나이

수저봉에 가지런히 누워 있는 손가락을
상 위로 옮기는 가벼운 노동을
아직 생각이 어린 아이들에게 시킨다
몸과 생각에 물기가 많은 아이들은
죽음과 생의 신비가 손가락에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

따닥따닥 말발굽 소리를 내며
아이는 상 위에 손가락을 식구 수대로 가지런히 놓고 있다
눈대중으로 손가락 숫자를 헤아려본다

가장 귀중한 손가락을
나는 이미 스무 살에 잃은 적이 있다

배영옥 시인 = 1966년 대구 출생, 1999년<매일신문>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
시집 『뭇별이 총총』

집을 떠나있는 자녀들에게 '동창회보' 를 보냅니다

아빠의 모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구독신청 안내

추가 구독료(년 3만원)를 동문님의 이름으로 먼저 송금해주시고
회보를 보낼 자녀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본부동창회 사무국 ☎ 051)245-7551~3

용마 에세이

'셀폰 제머'의 시판을 기다리며



이재일 (18회, 한국소비자신문 편집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나이 많은 이들이야 귀가 어두워서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지만, 젊은이들이 그럴 때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들의 무감각과 기본적인 '통화예절'이 뭔지도 모르는 태도가 알립기만 하다.

지하철을 타면 항상 듣게 되는 안내방송이 있다. "다른 승객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일을 삼가 달라"는 당부의 말이다. 그러나 이런 안내방송은 하나마나다. 모두들 귀 밖으로 흘러기 때문이다.

지하철 같은 데서 승객들끼리 큰 소리로 나누는 대화는 그런대로 참을 만하다. 반면 남이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것을 들으면 이상하리만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난다. 왜 그럴까. 외국의 어떤 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연구한 바에 따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끼리의 대화는 어떤 내용인지 제3자가 알아들을 수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대화에 참여하게 돼 시끄럽다고 느끼지만 참을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휴대폰통화는 저쪽에서 말하는 내용을 전혀 들을 수가 없으므로 제3자는 그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궁금증만 자아낼 뿐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에는 누가 큰 소리로 통화하면 "조용히 통화하라"고 나서서 지적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사람을 거의 보기가 어렵다. 이러다보니 이제

는 공공장소에서 거리낌없이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말았다. 마치 누가 더 큰 소리로 통화하는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은 양상이다.

몇 년 전 미국에서 반경 30피트(약 9m) 이내의 휴대폰 통화를 차단시키는 담배갑 크기의 '셀폰 제머' (Cellphone Jammer)라는 방해장치가 시판된 적이 있다. 가격이 50달러가 넘는데도 불티나게 팔리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조용히 통화하는 사람들의 통화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며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품은 더 이상 발매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나는 신경이 예민해서인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보다 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 오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서서 한마디 할 용기가 없다. "웬 잠견이나"며 새파란 젊은이가 눈을 부릅뜨고 덤비더라도 하면 어찌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 그게 겁이 나 입을 다물고 만다. 대신 나는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이럴 때 내 호주머니에 '셀폰 제머'가 들어 있다면... 호주머니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슬쩍 스위치를 켜서 저 무례한 통화를 단번에 중단시킬 텐데... 설사 그것이 조용하게 통화하는, 공중도덕을 아는 사람들의 통화권리를 일시 침해하는 것이 되더라도 말이다.

오늘도 나는 '셀폰 제머'라는 그 기막힌 물건이 어서 빨리 이 땅에서도 시판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

論評

동창회 '만형'의 마지막 당부

한 집안이든 동창회 같은 임의단체든 어른 역할을 하는 이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 동창회의 경우 지금까지 명실공히 만형 노릇을 해온 이가 고 정동식 동문(1회)이었다. 지난해 10월25일 들려온 정 동문의 타계소식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이고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고인은 평생 오직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헌신했다. 경남중고 제1회 졸업생으로 재학 때 초대 학생회장을 지냈던 그는 1964년 재경동창회 초대회장을 맡아 동문명부를 처음으로 만들고 <경남중고동창회보>를 창간하는 등 우리 동창회의 체계를 잡은 장본인이었다. 그러기에 동창회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을 것이다. 1972년 재경동창회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동창회와 동문들에 대한 고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우리 동창회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았다. 힘들게 투병 중이던 지난해 8월16일 그는 병문안을 온 김경희 동문(9회)의 손을 꼭 잡고 세 가지 사항을 간곡하게 당부했다고 한다. 모교발전기금 100억 모금을 꼭 성공시킬 것, 2005년 이후 발간되지 않고 있는 회원명부도 새로 발간할 것, 그리고 모교70년사를 이번에는 꼭 발간하도록 할 것 등 세 가지였다.

고인은 이 자리에서 "특히 모교와 동창회의 역사 기록은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미 50년사도, 60년사도 내지 못하고 넘어갔으니 70년사만은 때를 넘기지 말고 꼭 내야한다. 이미 늦었지만 모교역사를 아는 증인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70년사를 내야 한다. 어떤 이유도 다 핑계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두 달 쯤 뒤 타계했다. 결국 고인의 이 당부는 우리 동창회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다.

고인이 그토록 간곡하게 당부한 70년사 발간 문제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본부동창회가 70년사 발간을 결정하고 편찬위원장까지 추대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1년도 더 전인 2010년 10월 25일이었었다. 당시 이용홍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발간 경비로 1억원을 배정하는 등 70년사 발간을 위한 기본적인 발판을 의욕적으로 마련하고 물러났다. 그러나 후임 회장단이 들어서면서부터 70년사 발간은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들리기로는 본부동창회에서는 "재경동창회에 경비분담 협조요청을 했으나 별 무반응"이라는 입장인 것 같고, 재경동창회측은 "70년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요청도, 종이포가리 한 장조차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유나 경위야 어찌 됐든 우리 동창회가 70년사 발간을 공식 결정하고도 1년 이상 아까운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럽고도 한심한 일이다. 본부든 재경이든 우리 동창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은 고 정동식 동문이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당부를 한번쯤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한다.

모교의 개교 70주년 기념일(2012년 4월30일)이 불과 몇 달 앞이다.

편집실 메모

▶ 이번 호는 신년호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평소보다 지면을 4개면을 더 늘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들을 담았습니다.

▶ 서양화가인 박윤성 동문(24회)이 임진 새해를 맞아 목판화작품 <흑룡>을 특별제작해 동창회보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새해에 흑룡의 기운을 받아 승승장구하시라는 뜻을 담아 제작한 판화작품이라고 합니다. 지면을 빛내 주신 박 동문에게 감사드립니다.

▶ 소설가 천금성 동문(14회)의 새해맞이 명랑폰트 <똥구두 프로젝트>가 이룬 기적'은 우리 모두 한바탕 웃으면서 신년벽두를 맞이하는 뜻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이 폰트를 그저 꿈같은 이야기 또는 황당한 이야기로만 치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폰트에서 소설가인 천 동문의 모교발전을 염원하는 속마음이 읽히기 때문입니다. 부고해주신 천 동문에게 감사드립니다.

▶ 매호 옥고를 보내주시고 있는 <다시보는 부산>의 김형윤 동문(18회)과 <김성언의 인문산책>의 김성언 동문(24회)에게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보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료도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이처럼 열심히 원고를 보내주시니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거듭 고마움을 전합니다.

▶ 동창회보에 실을 광고가 없어 매호 제작 때마다 짹짹 맵니다. 우리 동문들 중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 한둘이 아닌데도 정작 광고를 내주시는 분은 드물습니다. 이런저런 모임에

는 흔쾌하게 스폰서역할을 하시는 동문기업인들이 동창회보를 돕는 입에는 의외로 인색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작비 부족으로 다시 '8면짜리 회보'로 되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 새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의 건승과 승승장구를 빕니다.

투고, 제보 받습니다

경남중고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의견을 신문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고와 제보는 연락처를 기재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십시오.

경남중고 동창회보 편집실
팩스 051)245-7550
☎ 051)245-7551~3
E- 메일 yongmanews@gmail.com



사철 푸른 바다가 있는 따뜻한 겨울, 부산 해운대.
 온화한 날씨로 겨울철 골프 라운딩을 이어갑니다.
 천상의 휴식과 함께 찾아 온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골프패키지로
 즐거운 골프 라운딩을 만끽해 보세요.



PARADISE HOTEL
 BUSAN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골프 패키지 따뜻한 해운대, 겨울 골프가 즐겁다

기간 : 2011.12 ~ 2012.3 가격 : 540,000원 부터 (세금, 봉사료 별도)

2인 기준

디럭스 룸 + 골프장 그린피 + 호텔 - 골프장 차량 제공 (월-목) + Late Check-Out + 사우나

4인 기준

온돌 스위트 + 골프장 그린피 + 호텔 - 골프장 차량 제공 (월-목) + Late Check-Out + 이그제큐티브 혜택

- 해운대 바다가 한 눈에 펼쳐지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의 1박
- 호텔 인근 약 15분의 짧은 이동 거리에 위치한 27홀 럭셔리 골프장에서의 라운딩
- 스파, 호텔 식당의 별도 유료 프로그램 선택 가능
- 주중, 주말에도 예약이 가능 (한정 제공)

문의 및 예약 :

객실예약과 Tel.051_749_2111

www.paradisehotel.co.kr